

한국의 20-30대 마약 사용자의 캠섹스(Chemsex)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임 한 나¹⁾ 신 성 만[†]

본 연구는 한국의 20-30대 마약 사용자 6명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이들이 캠섹스(Chemsex)를 하게 되는 과정과 캠섹스 경험 및 그로 인한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영향을 해석현상학적 분석(Interpretative Phenomenological Analysis: IPA)으로 탐구하였다. 캠섹스는 성적 쾌락을 극대화하기 위해 특정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로, 기존 연구가 남성과 성관계하는 남성(Men who have sex with men)에 주로 국한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한국의 이성애자 및 다양한 성적 지향을 가진 마약 사용자들을 포함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접근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총 7개의 주제와 20개의 하위 주제가 도출되었으며, 도출된 7개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캠섹스에 대한 낮은 진입 장벽', '캠섹스의 쾌락 역학', '캠섹스: 극한의 쾌락과 중독 경험의 강화', '캠섹스 중 겪는 복합적 어려움', '캠섹스로 인한 자기파괴적 결과', '쾌락의 지속을 위한 안전장치들', '강렬한 쾌락의 여운'. 본 연구는 한국의 20-30대 마약 사용자의 약물 사용과 성적 행동에 미치는 복잡한 상호작용을 조명하며, 중독의 사이클에서 나타나는 양가감정과 고립, 심리적·신체적 어려움을 강조한다. 본 연구의 통찰은 캠섹스를 포함한 약물 사용이 개인에게 미치는 복합적인 영향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하며, 연구자와 실무자들이 이를 보다 열린 시각으로 탐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캠섹스, 20-30대, 마약 사용자, 해석현상학적 분석(IPA), 마약중독

* 본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1) 한동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석사 졸업

† 교신저자 : 신성만, 한동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교수, 경북 포항시 북구 한동로 558

E-mail: sshin@handong.edu



Copyright ©2025,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한국은 최근 20-30대 성인 남녀를 중심으로 마약 사용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대검찰청(2023)에 따르면, 2023년 국내 마약류 범죄 단속 인원은 27,611명으로, 2022년(18,395명) 대비 50.1% 증가하였다. 한국에서 마약 사용은 불법이므로, 공식적으로 적발된 인원보다 실제 사용자 수는 훨씬 많을 가능성이 크다. 박성수와 백민석(2019)의 연구에서도 마약류 범죄의 실제 발생 규모가 공식 집계된 수치보다 약 30배 많을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또한, 2023년도 마약사범 중 20-30대가 15,051명으로 전체 마약사범에 54.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에 30-40대의 마약사범의 비중이 높았던 것과 비교하면 20대의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했음을 보여준다(대검찰청, 2014; 대검찰청, 2023).

이와 관련하여, 젊은 성인 남녀의 마약 사용 동기가 성관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존재한다. 심석(2023)의 연구에서 20-30대 마약류 남용 경험자 10명을 대상으로 마약류 남용에 대한 심리사회적 위험요인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의 참여자가 성관계에서 쾌락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약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Cheng 등(2009) 또한 여성의 경우 메스암페타민(methamphetamine) 사용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미 메스암페타민을 사용 중인 남성 성 파트너(sex partner)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성관계 자체가 마약 사용의 촉매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캠섹스(Chemsex)란 신체에 특정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약물을 의미하는 '캠(Chems: chemicals)에서 유래'와 성관계를 의미하는 '섹스(Sex)'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용어로(Stuart, 2019), 성관계로 인한 쾌락을 극대화 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뜻한다. 해당 용어는 영국의 '남성과 성관계 하는 남성'(Men who have sex with men, 이하 MSM) 커뮤니티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2010년대 초부터 여러 미디어에 등장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하였다(Sturt, 2019). 캠섹스에 자주 사용되는 약물은 메스암페타민(methamphetamine), 메페드론(mephedrone), GHB(gamma hydroxybutyric acid)/GBL(gamma butyrolactone), 케타민(ketamine) 등이 있으며(Bourne et al., 2015; Scholz-Hehn et al., 2022), 이러한 약물은 성적 쾌감을 증폭시키고, 억압된 감정을 탈억제(disinhibition) 시키는 역할을 한다(Stuart, 2019). 또한, 이러한 약물의 사용은 남성 동성애자 간 항문 성교 시 발생하는 고통을 완화시키는 등의 이유로 성관계를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여겨지고 있다(Power of Pleasure, 2022).

캠섹스는 주로 MSM 사이에서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성적 지향에 구애받지 않고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는 이성애자들 사이에서도 약물 사용 후 성관계가 이루어진다는 여러 연구 결과에 근거한다(Khadr et al., 2016; Rawson et al., 2002). 예를 들어, Cheng 등(2009)의 연구에서 미국인 이성애자 452명(남 306명, 여 146명)을 대상으로 메스암페타민 사용과 성별에 따른 위험 성 행동(risky sexual behaviors)의 차이를 조사하였는데, 여성과 남성 간 위험 성 행동에 대한 양상과 동기는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약물 사용 후 성관계를 하는 캠섹스 개념이 확인되었다. 또한, James 등(2013)의 연구에서는 주사기로 약물을 사용하는(injection drug use) 미국 청소년 및 초기 성인 남녀 274명(남 161명, 여 108명)을 대상으로 잠재적 군집 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군집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분류된 세 군집 모두에서 콘돔 없는 성행위 등과 같은 위험 성 행동이 나타났다. 해당 연구에서 전체 연구대상자 중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를 제외한 이성애자 비율이 64% (175명)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켈섹스가 이성애자 사이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켈섹스의 주체가 되는 대상을 MSM으로 한정하지 않고, '성적 쾌락을 극대화하기 위해 성관계 전이나 도중에 특정 약물을 사용하는 개인'으로 확장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켈섹스를 하는 개인은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에 직면하며, 이는 사회적인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첫째, 켈섹스를 하는 개인은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Semple 등(2005)은 지난 두 달 동안 최소 한 명 이상의 성 파트너와 보호되지 않은 성관계(unprotected sex)를 한 이성애자 메스암페타민 사용자 182명(남 75%, 여 25%)을 분석한 결과, 메스암페타민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우울 증상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메스암페타민 사용과 위험 성 행동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정신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Moreno-Gómez 등(2022)의 연구에 따르면, 켈섹스와 다중 약물 사용(polydrug use)이 MSM의 정신병 발병 위험을 최대 3배까지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둘째, 켈섹스는 다른 위험 성 행동(risky sexual behaviors)을 촉진한다. Hittner 등(2016)은 이성애자를 대상으로 한 24편의 연구에 대해 메스암페타민 사용과 고위험 성 행동 간의 관계를 메타분석한 결과, 보호되지 않은 질 성관계 또는 항문 성관계(unprotected vaginal or anal sex), 불규칙한 콘돔 사용, 여러 파트너와의 성관계가 주요 위험 성 행동으로 나타났으며, 메스암페타민

사용자가 비사용자보다 위험 성 행동을 할 확률이 37-72%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위험 성 행동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성병이나 HIV 전파의 우려가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도 발전할 수 있다(McKetin et al., 2018; Stevens et al., 2019; Xu et al., 2014).

켈섹스가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하지만, 국가별로 관련 연구의 활성화 정도에는 큰 차이를 보인다. 서구권에서는 특히 영국, 유럽, 미국, 호주 등에서 MSM을 대상으로 한 켈섹스 관련 연구가 대다수 진행되어 왔다(Moreno-Gómez et al., 2022; Íncera-Fernández et al., 2021; Maxwell et al., 2019). 반면, 아시아 지역, 특히 중국, 태국, 베트남 등에서는 근래에야 관련 메타분석 연구가 이루어지는 등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Newland & Kelly-Hanku, 2021; Wang et al., 2023).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마약 사용과 성관계를 동시에 다룬 공식적인 통계나 켈섹스 현황에 대한 자료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이는 켈섹스를 구성하는 마약과 성관계라는 두 요소가 법적으로 금지되거나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속해 있어, 주로 비공식적이고 은밀하게 다뤄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20-30대의 마약 사용이 증가하고 있고, 이들의 약물 사용 패턴이 성관계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일부 존재하지만, 켈섹스 자체를 다룬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다른 국가의 선행연구들이 주로 MSM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과 달리(Batiste et al., 2021; Iking & Gruemer, 2021; Whitlock et al., 2021), 한국에서는 그러한 연구마저도 찾아보기 어렵다. 현재 한국에서 시중에 공개된 켈섹스 관련 자료는 'Power of Pleasure(POP)' 연구 모임에서 발간한 '켈섹스(Chemsex)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한국 상황에 대한 보고서'(Power of Pleasure, 2022)로, 총 6명의 켄섹스 경험이 있는 한국인 남성 동성애자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학술적인 연구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연구 대상도 남성 동성애자로만 한정되어 있다. 또한, 주일경(2004)의 연구에서는 남성 히로뽕(메스암페타민) 사용자 7명을 대상으로 히로뽕 사용에 따른 과대성락(過大性樂)과 인식을 탐색하였지만, 연구 대상에 여성이 포함되지 않았고, 연구 시기가 약 20여년 전으로 현재 한국 젊은이들의 마약 사용 및 성관계 경험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한국에서 심각해지고 있는 20-30대의 마약 남용 문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단순히 마약 사용의 원인뿐만 아니라,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는 성관계와 결부된 약물 사용 패턴 및 이로 인한 재발 과정을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20-30대 마약 사용자를 대상으로, 이들이 켄섹스를 하게 되는 과정과 켄섹스 경험, 그로 인한 삶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 방법으로 해석현상학적 분석(Interpretative Phenomenological Analysis: IPA)을 활용하였으며,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20-30대 마약 사용자들이 켄섹스를 하게 되는 과정은 어떠한가?

둘째, 한국의 20-30대 마약 사용자들의 켄섹스 경험은 어떠한가?

셋째, 한국의 20-30대 마약 사용자들의 삶에 켄섹스 경험이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방 법

연구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연구 주제의 민감성과 한국의 마약 사용자라는 접근이 극히 제한적인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참여자 모집을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으로 진행하였다. 눈덩이 표집은 초기 참여자가 추가 참여자를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방식으로, 접근이 어려운 집단에서 효과적으로 참여자를 모집할 수 있는 방법이다(Noy, 2008). 이를 위해 연구자는 한국의 마약중독 치료기관 및 재활센터 등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연구대상자들과 라포(rapport)를 형성하고, 연구 주제에 적합한 대상자에게 연구 참여를 제안하였다. 그 결과, 20-30대 한국인 마약 사용자 중 켄섹스 경험이 있는 6명의 연구참여자를 모집할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는 현재 한국에서 마약 사용 비율이 높은 20-30대 성인 남녀로, 국적은 한국인으로 한정하였다. 둘째, 한국에서 켄섹스를 경험한 자로서, 메스암페타민, 메페드론, GBL/GHB, 케타민 등 주요 켄섹스 약물을 성관계 전이나 도중에 사용한 경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켄섹스 약물 중에서도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사용자들이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필로폰이 한국에서 가장 많이 남용되는 약물이며(대검찰청, 2023; 중앙관세분석소, n.d.), 성적 쾌락을 증진하는 효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주일경, 2004). 셋째, 마약중독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발적인 치료 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약물중독 재활시설이나 치료기관에서 치료 중이거나 NA(Narcotics Anonymous)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표 1. 연구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켐섹스 관련 정보

구분	성별	성 정체성	연령 (세)	��섹스 시작 연령(세)	혼인 상태	종교	교육 수준	직업	��섹스 파트너 수(명)	��섹스 약물
A	남	이성애	31	30	미혼	기독교	고졸	무직	3	필로폰
B	여	이성애	27	24	미혼	기독교	고졸	무직	2	합성 대마, 필로폰
C	남	이성애	32	27	미혼	무교	대학 휴학	무직	4-5	대마, 필로폰, 코카인
D	여	이성애	33	32	이혼	기독교	고졸	무직	3	필로폰
E	남	동성애	38	19	미혼	기독교	고졸	무직	100↑	러시, 필로폰
F	트랜스 젠더 (여→남)	양성애	28	26	미혼	기독교	고졸	무직	100↑	필로폰

자로 제한하였다. 이는 치료 의지가 있는 참여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더 솔직하게 공유할 수 있고, 연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연구참여자는 자발적 동의 절차를 거쳤으며, 개인정보 보호와 익명성 보장 등 연구윤리를 준수하였다. 넷째, 연구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로, 약 2시간에 걸친 인터뷰에 무리 없이 응할 수 있으며, 켐섹스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켐섹스 관련 정보는 표 1과 같다.

연구 절차

본 연구는 Smith 등(2015)이 제시한 연구 절차에 따라 수행되었다. 먼저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연구 목적과 연구 문제를 설정한 후 이에 가장 적합한 연구 방법으로 해석현

상학적 분석(IPA)을 채택하였다. 그 후 연구 대상자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한 뒤, 선행연구를 참고하고 질적 연구 경험이 풍부한 박사급 전문가 2명의 도움을 받아 인터뷰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자료 수집은 연구대상자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약물중독 재활기관에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대상자들과 신뢰를 쌓은 후, 연구 참여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사람들에 한하여 개별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전사한 뒤, IPA 분석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절차는 한동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2024-HGUA005)의 심의를 거친 후에 진행되었다.

연구 준비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24년 2월부터 주취 기관이 다른 다양한 NA모임을 총 6차례 참관하였고, 연구대상자와의 신뢰 및 라포 형성을 위해 특정 재할

기관을 약 8개월간 주기적으로 방문하였다. 또한, 마약중독 치료 현장을 이해하기 위해 병원에서 제공하는 약물 교육 및 가족 교육에 참석하였으며,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보조강사로 활동하며 실무 관점에서의 대상자 이해와 서비스 현황, 법적 절차에 대한 지식을 쌓았다.

추가적으로, 연구자가 속한 연구실에서 용역의 일환으로 해외 마약예방 프로그램을 조사하고 한국의 상황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시연한 바 있으며, 마약중독자 대상 개인 상담에 대한 문헌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대상자의 특성과 필요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켰다.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2024년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었으며,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6명의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개별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참여자별로 총 2회 진행되었으며, 1차는 약 2시간 30분, 2차는 1시간 이내로 진행되었다. 2차 인터뷰는 1차 내용을 정리하고 확인한 후 추가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필요 시 전화나 문자로 내용을 보충하였다. 인터뷰 장소는 주로 참여자가 거주하는 곳 근처의 스터디 카페 회의실에서 진행하여 참여자가 진솔하게 자기 개방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인터뷰 진행은 인구통계학적 정보와 마약류 사용 경험, 캠퍰스 경험에 관한 설문 내용을 검토하고 관련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으며, 이후 본격적인 질문은 캠퍰스를 하게 된 과정, 캠퍰스 경험, 그로 인한 영향과 의미를 묻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참여자들에게 인터뷰 진행에 앞서 연구 목적과 비밀 유지에 대해 설명하고, 녹음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으며,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소정의 답례품을 지급하였다.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Smith 등(2015)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먼저 인터뷰 녹음을 반복 청취하며 전사한 뒤, 전사본에서 흥미롭거나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예비 주석으로 기록하였다. 주석에는 탐색적 메모, 서술적 메모, 비언어적 반응 분석 등이 포함되었다. 이후 주석 간 연관성을 검토하여 초기 주제를 생성하고, 주제의 패턴을 분석하여 포괄적인 주제를 도출하였다. 이를 MS PowerPoint와 Excel을 활용해 군집화한 후, 2차 인터뷰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다음은 각 참여자의 진술을 개별적으로 심층 분석한 후, 사례 간 공통 주제와 경향성을 파악하였다. 도출된 주제는 출력하여 테이블 위에 배치한 뒤, 연구문제 및 주제 간 유사성을 고려하여 재정리하였다. 이후 하위 주제를 도출하고, 하위 주제 간 관계를 분석하여 상위 주제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주제와 하위 주제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해 질적 연구 전문가 1인과 상담심리학과 교수 2인의 자문을 구하여 자료 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결 과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20-30대 마약 사용자가 캠퍰스를 접하는 경로와 그 경험 자체, 그리고 이로 인해 삶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참여자들의 캠퍰스 경험을 그들의 시각에서 이해하고, 이

표 2. 한국의 20-30대 마약 사용자의 켐섹스(Chemsex) 경험 분석 결과

주제	하위 주제
��섹스에 대한 낮은 진입 장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약물 사용자나 성 파트너를 통해 켐섹스를 접하게 됨 - 온라인으로 켐섹스 관련 정보를 습득함
��섹스의 쾌락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로폰이 주는 성적 경험은 다른 약물과는 확연히 다름 - 쾌락의 강도: 필로폰 사용 < 필로폰 사용 후 자위 < 켐섹스 - 켐섹스 대상이나 상황에 따라 황홀경을 경험하지 못하기도 함
��섹스: 극한의 쾌락과 중독 경험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짝만 스쳐도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첫 켐섹스 경험 - 이대로 죽어도 좋겠다 싶은 10시간 이상의 오르가즘 - 재투약 시간: 약기운이 떨어질 즈음 쉬면서 용량 추가 - 집단 켐섹스: 끊임없는 자극 추구와 성적 판타지의 실현
��섹스 중 겪는 복합적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기가 어려워 발기부전제와 성인용품 사용, 장시간 구강 성교로 이어짐 - 상대에 대한 의심과 집착 증가, 서로 자신의 쾌락에 몰두됨 - 장시간 많은 분비물로 인해 장소를 자주 옮김
��섹스로 인한 자기파괴적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좋았던 만큼 비례하는 신체적·심리적 후폭풍 - 다수의 파트너로 인한 법적 문제 발생의 가능성 - 필로폰 없이는 성적 만족을 느끼기 어려움
쾌락의 지속을 위한 안전장치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 파악 및 수분 섭취를 위한 알람 설정 - 한 번 할 때 3일 넘기지 않기 - 필수적인 휴식 및 최소한의 음식 섭취
강렬한 쾌락의 여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극한의 쾌락과 고통이 얽힌 켐섹스에 대한 양가감정 - 삶의 개선을 위한 자기 훈련과 노력

를 토대로 연구자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분석 결과, 총 99개의 의미 단위가 추출되었고, 이 중 상호 연관성이 있는 의미 단위를 군집화하여 20개의 하위 주제를 도출하였다. 이후 연구문제를 고려한 주제별 군집화 작업을 거쳐 총 7개의 주제를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2에 요약되어 있다.

��섹스에 대한 낮은 진입 장벽

한국의 20-30대가 켐섹스에 진입하는 경로를 살펴보면, 연인 또는 성 파트너를 통해 처

음 접하거나, 주변 약물 사용자들로부터 켐섹스 관련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듣다가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주로 나타났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한 MZ세대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플랫폼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마약을 거래하며, 켐섹스 경험담을 공유하거나 성 파트너를 구하는 데 이를 활용하고 있었다.

다른 약물 사용자나 성 파트너를 통해 켐섹스를 접하게 됨

참여자 B는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자연스

럽게 캬섹스를 접했고, 참여자 E는 남성 동성애자 사이에서 자주 사용되는 웹 플랫폼을 통해 만난 성 파트너를 통해 캬섹스를 처음 접하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B(여성): 처음에는 약을 같이 하다가 그냥 그제 남자친구니까 자연스럽게 같이 사용을 하게 된 것 같아요 ... 이제 남자친구가 약간 그런 의도로 저한테 갖고 왔었던 건데 ... 알아서 (필로폰을)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이니까 그냥 좀 자유로웠던 거죠.

E(남성 동성애자): 그때 처음 접했어요. 러시(Rush: 알킬 니트라이트(Alkyl nitrite)가 포함된 파티약의 일종)는 성관계를 하는데 상대방이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코로. (그래서) 뭔데? (물으니) 좋은 거래요. 그래서 저는 그게 법적으로 문제되는지도 몰랐고 그때는 그냥 같이 했죠. 같이 했어요. 제가 호기심에 상대방이 하길래 했어요 저도.

참여자 B와 E가 연인이나 성 파트너의 권유로 캬섹스를 시작한 반면, 참여자 A는 주변 캬섹스 경험자들로부터 자주 관련 경험담을 들으며, 점차 그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가 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진술했다.

A(남성): 주변에서 계속 이제 친구들과 얘기, 이제 아무래도 약물 사용자들은 약물 사용자들만 만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물 사용자들끼리 얘기를 해서 누군가 (캬섹스) 경험을 계속 얘기하고, 계속 주기적으로 듣고, 그리고 나부터 또 내가 혼자

있을 때 그런 성취감(약물 사용 후 자위로 인한 성취감)을 느끼는데 그 와중에도 내가 (친구가 들려준 이야기의) 저 주인공이라면, 자연스럽게 인간이니까 그제 더 이어져서 내가 실현화시켜야겠다라는 그런게 생기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

온라인으로 캬섹스 관련 정보를 습득함

참여자 D는 화류계에서 일하며 주변의 약물 복용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수면제와 다이어트 약을 시작하게 되었고, 약을 구하는 과정에서 필로폰에 노출되게 되었다. 이는 사회적 환경이 약물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춤을 보여준다. D는 처음에는 필로폰의 강한 각성 효과로 인해 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였고, 필로폰과 성관계의 연관성을 잘 알지 못하였으나, 어느 온라인 플랫폼의 마약방에서 캬섹스 개념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D(여성): 30살에 (필로폰을)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그제 먹고 이제 일을 하는데 전혀 그때는 약(필로폰)이랑 섹스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아예 전혀 몰랐어요. OOOO 보면 보통 이제 유저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는 마약방이 많이 있거든요. 몇 천 명까지 있는? 거기 안에서 파트너들도 많이 구하고, 자기가 약물 이제 뽕섹(캬섹스) 했던 썰 막 이렇게 풀기도 하고 막 하고 싶다 뭐 어쩐다 이런 얘기, 나 지금 한다, 막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채팅에 올라와요. 수백 개씩 ...

참여자 E는 채팅 사이트에서 반복적으로 보이는 암시적 문구에 호기심을 느껴 직접 연락

을 취했고, 그 과정을 통해 필로폰을 처음 접하게 되었다. 이후 그는 여러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약물과 성 파트너를 구해 지속적으로 켄섹스를 이어갔는데, 여러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은 추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E(남성 동성애자): 필로폰은 제가 (게이 관련) 채팅 사이트를 이제 보는데 게시판에 뭔가 제가 봤을 때 은어로 느껴졌거든요. '날도 더운데 시원한 모텔에서 시원하게 에어컨 켜고 쿨하게 즐기실 분' 이렇게 하면서 이게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내가 쪽지를 보내서 만나보자 이러니까 뭔지 알고 그러느냐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얻는 것 같다.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오케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났는데 갑자기 무슨 하얀색 가루를 꺼내요. 저는 그게 필로폰인지도 몰랐어요 ... 그래서 알게 됐죠.

켄섹스의 쾌락 역할

참여자들은 켄섹스 중 사용한 약물의 종류와 용량, 상황에 따라 다른 쾌락 경험을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대부분의 참여자는 필로폰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필로폰 투약 자체에서 느껴지는 극적인 쾌락뿐만 아니라 자위행위 및 성 파트너와의 성행위를 통해 점진적으로 강렬한 쾌감을 경험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필로폰 투여량이 부족하거나 업무적 상황에서의 켄섹스는 주로 각성 효과나 부작용이 두드러졌다고 보고하였다.

필로폰이 주는 성적 경험은 다른 약물과는

확연히 다름

본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은 주로 필로폰을 중심으로 켄섹스 경험을 공유하였지만, 일부는 다른 약물을 사용한 경험도 언급하였다. 참여자 B와 C는 성별은 다르지만 대마 사용 후 성관계 시, 오감이 예민해지면서 쾌락의 강도가 더 깊이 느껴졌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참여자 C는 유학생활의 영향으로 대마를 마약으로 간주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고, 이에 따라 대마 사용 후의 성관계를 켄섹스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는 필로폰 사용 후 성관계에서 느낀 강렬한 쾌락이 대마 사용 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참여자 A는 필로폰이 성적 행위와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것과 달리, 다른 약물을 사용한 후에는 성관계가 선택적인 부분으로 여겨졌다고 진술하였다.

B(여성): (합성대마는) 이제 너무 섬세해지고 그렇게 좀 예민해지다 보니까 그게 또 좋더라고요 ... 솔직히 초반에 저는 허브(합성대마)가 더 좋았었던거든요, 관계할 때. 근데 좀 (필로폰을 하면) 차이점이 계속 내가 성적으로 푹히게(집중하게) 되니까 점점 계속 머릿속에 성적인 생각 밖에 안 하는 거예요 ...

C(남성): 대마초를 하고 성관계를 하면 좀 오감이 좀 발달돼서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이 여자의 질 내벽이 조금 더 자세히 잘 느껴지는 느낌은 나요. 근데 이게 이 약 때문에 정말 좋구나 섹스가 좋구나 이런 느낌은 필로폰을 나중에 해본 사람으로서 좋구나 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뭐 좋긴 좋아요. 대마하고 해도. 대마하고 해도 좋

긴 좋은데 그 좋음과 필로폰을 하고 (성) 관계를 하는 좋음은 완전히 다른 방향이라서 ...

A(남성): 합성 대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암페타민. 이런 것들은 도파민이 나오지만 내가 성적으로 연결하려고 해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성이랑) 밀접하지 않아요.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이라는 약물은 자동적으로 그냥 (성적으로)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면 다른 것들(다른 약물)은 이 약물에 대해서 자기가 약을 복용하고 이런 느낌일 때 (성관계를) 하면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 선택사항이지 이렇게 그냥 직렬적으로 가버리지 않아요.

쾌락의 강도: 필로폰 사용 < 필로폰 사용 후 자위 < 켄섹스

참여자 A는 처음 필로폰을 사용했을 때, 필로폰 사용 후 자위를 했을 때, 더 나아가 이성과 켄섹스를 하러 가는 상황에서 느끼는 쾌감의 강도를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A(남성): 필로폰은요, 어떤 느낌이나면 (주사기를) 꼽는 순간 ... 감히 말할 수 있겠지만, 누군가 이제 내가 소중한 아이를 계획하고 낳았을 때 그 황홀함이 처음에 찾아와요. 정말 그 기쁨 환희 너무나 감동 ... 그게 이제 처음 했을 때. 그 이후로는 그렇게 찾아오지 않는 처음의 그 황홀함이 찾아오고 ... 남자는 이제 사정을 하기 직전에 제일 민감한 부분이 도드러지면서 감촉을 받으면서 그거에 대한 굉장한 쾌락을 느끼거든요. 일반 상태일 때도. (필로폰을 하면) 그거에 감히 약 40배(를 느껴요) ...

A(남성): (필로폰 투약 후) 자위를 먼저 하는데 너무 근데 이 행위만 해도 여자가 필요 없겠다 정말 그 정도예요 ... 어떤 단어로도 모자라는데 그냥 제일 표현이 가능한 게 '극락'이에요. 극락 자체라서 심지어 이성과 사랑하고 그런 욕구를 느끼는 인간이 ... 이성마저 없어도 된다고 느낄 정도의 쾌락을 주니까 ... 그래서 한동안 이것만(자위만) 했었어요. 정말 미친놈처럼.

A(남성): 개도 원래 이제 다른 곳에서 약물을 배워온 친구고 저도 이제 다른 곳에서 약물을 구해서 그 친구랑 같이 했어요. 근데 정말 처음에 이 약물을 하는 것도 설레는데 이성과 같이 한다? 어떻게라는 설렘이 마치 어떤 몇 억짜리 집을 사러 가는 듯한 느낌 ...

흥미롭게도, A는 필로폰 사용 이전에는 성욕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어머니와 두 누나와 함께 성장한 환경 속에서 여성에 대한 존중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필로폰 사용 후 여성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렇듯 A의 진술은 필로폰으로 인한 쾌락의 강도가 단순한 감각적 경험을 넘어 사용자의 정서적·심리적 변화를 동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A와 비슷한 맥락에서 참여자 D도 단순 약물 사용을 넘어서 켄섹스로 인해 증폭된 쾌락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D(여성): 약을 하는 것도 좋은데 약을 하면 오는 그 느낌, 그거도 너무 좋은데 그 상태에서 섹스를 하니깐 더 좋은 거죠.

바디감에 이제 하이(high)가 계속 있는데 그 상태에서 그 섹스는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이 본능적인 욕구, 그걸 쾌락을 하는데 제일 좋죠. 더 좋죠.

��섹스 대상이나 상황에 따라 황홀경을 경험하지 못하기도 함

참여자 D는 화류계에서 일하며 필로폰을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약 2년간 필로폰을 하며 손님들과 성관계를 가졌지만, 당시에는 성적 쾌락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D는 필로폰 사용 초기에는 주로 소량만 사용하여 각성 효과를 느꼈고, 이로 인해 장시간 깨어있으며 더 많은 손님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았다고 하였다. 또한, 그녀에게 손님과의 켐섹스는 '일(work)'로 인식되었기에, 자신의 성적 만족을 추구하지 않았던 점이 성적 쾌감 여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D(여성): 왜냐면 그때 이혼 후였고 별로 연애 생각도 아예 없었고 일이었고, 일이었기 때문에 그 손님들하고 섹스를 해도 이게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그냥 빨리 싸라 빨리 싸라 내 일 끝나게, 이 생각에 다른 생각에 꼬혀 있지, 그 관계에 집중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특히 성매매하는 여성들은 ... 이 새끼를 어떻게 하면 빨리 싸게 하지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지, 오늘 얼마 벌었지 나? 이 생각하고 있지 ... 남자친구랑 했던 것처럼 나의 쾌락 내가 내 기분이 좋았으면 좋겠어 막 이런 거에 꼬혀있지가 않으니까 ...

반면, D는 이후 약물중독 재활센터에서 만

난 남자친구와의 켐섹스는 개인적인 감정이 동반된 '나의 쾌락'을 위한 행위로 인식되었으며, 성적 만족이 크게 증폭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D의 경험은 약물 사용과 성적 경험이 맥락과 인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참여자 F는 필로폰 사용 이전부터 심각한 알코올 중독뿐만 아니라 성 중독으로 인해 성 파트너를 지속적으로 바꾸가며 관계를 맺었고, 도박 중독과 처방약물 남용 등 다양한 중독 문제에 노출되어 있었다. 그에 따르면, 이미 남용하던 다양한 약물들과 함께 성관계를 갖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기에, 필로폰은 단지 '추가된 약물 중 하나'에 불과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는 필로폰이 주는 강렬한 쾌락이 존재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다른 약물들과 비교했을 때 보다 특별하게 느껴지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이는 약물 사용에 따른 성적 경험이 사용자 고유의 중독 패턴 및 다른 물질이나 행동 중독의 영향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F(트랜스젠더): 그냥 솔직히 원래 술을 많이 마시고 ... 이제 술 아니면 다른 약물을 하고서 (성관계를) 해본 적이 많으니까, 솔직히 그 약물(필로폰)이 주는 빠방은 있었는데 뭔가 그거(��섹스)에 특별한 차이점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약물이 주는 그것(쾌락)이어서 수면제 먹고도 해보고 술이랑 수면제 같이 먹고 벤조(계열) ... 일단은 맨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는 (거여서) ... 워낙에 광범위하게 (이미) 중독된 게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캠섹스: 극한의 쾌락과 중독 경험의 강화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첫 캠섹스 경험을 잊지 못할 경험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이들은 필로폰 투약 직후 신체의 성적 감각이 극도로 예민해져 성관계 중 빠르게 황홀경에 도달하게 된다고 진술하였다. 남성 참여자들은 약물 부작용으로 발기부전을 겪는 경우가 많았는데, 일단 발기에 성공하면, 사정 후에도 발기가 유지되며, 오르가즘을 10시간 이상 느낄 수 있다고도 보고하였다.

캠섹스 도중 참여자들은 약물 효과가 약해질 무렵 추가 약물 투여 시간을 가지며, 이를 통해 쾌락의 지속을 도모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절반 이상의 참여자는 더 큰 쾌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집단 캠섹스 경험을 보고하였다. 집단 캠섹스는 지인들 간 합의 하에 이루어지거나, 비(非)약물 사용자에게 자신의 약물 사용 여부를 알리지 않은 채 진행되는 경우도 있었다.

살짝만 스쳐도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첫 캠섹스 경험

첫 캠섹스 경험에 대해 참여자 A, D, E는 모두 압도적인 신체적·감각적 반응을 강조하였다. A는 필로폰 사용 후 처음으로 성 파트너와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삽입 이전부터 이미 극도의 쾌락 상태에 도달했다고 회상하였다. 그는 성관계 도중 약물의 영향으로 신체적 한계에 부딪혀 상체가 힘없이 쓰러질 정도였다고 묘사하며, 성관계 이어지는 동안 이전보다 더 격렬하고 깊은 쾌락이 지속된 점에 놀라움을 표현하였다. D 또한 남자친구와의 첫 캠섹스에서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차원의 쾌락을 경험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녀는

성적 자극에 대해 민감도가 높아져 작은 접촉에도 뚜렷하고 즉각적인 신체 반응이 나타났음을 강조하였다. E는 필로폰 사용 후 모든 시각적, 음향적 자극이 성적으로 매혹적으로 느껴졌다고 진술하며, 필로폰 투약 후 일상적인 자극이 성적인 자극으로 변화함에 대해 언급하였다.

A(남성): 서로 주사를 하고 달아오르고 나서 서로 눈이 마주친 순간, 관계를 안해도 좋을 정도로 그 서로 살만 스쳐도 온몸이 서로 몸이 부르르르 떨려서 진짜 둘 다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손만 잡고 있어도 그렇게 될 정도로 ...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제 첫 삽입을 했죠 ... 몸이 닿는 순간 더 이렇게 삽입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이 버티고 있던 상체가 힘이 빠져서 그 여자 친구한테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기절을 한 게 아니라 ... 힘이 넘치는데 그 이상의 힘이 나오니까 이게 풀리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드린 상태로 했는데 다행히 ... 삽입을 해서 들어가는 순간 막 ... 이제 끝까지 밀어넣었는데 그 여자 친구와 제 몸이 피스톤을 안해도 될 정도로 부르르르 안고서 계속 떨고서 그러고 있는 것만으로 너무 좋아 ... 좀 더 나아가서 피스톤도 하는 순간 더 그 이상의 극락이 있었고 피스톤을 더 이어가면서 또 이제 사람이 성관계를 하면서 자세를 또 바꾸잖아요, 바뀌어서 또 그 이상이 있고 되게 신기한 거예요.

D(여성): 천국이 있네. 내가 했던 말이 고맙다 그랬어요. 오빠 고마워 내가 이 좋은 걸 모르고 살았네. 내가 이 말을 했었

어요. 정확하게 ... 그러니까 되게 민감해진다고 표현하면 딱 맞는 것 같아요. 살결이 이게 느낌이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만큼(큰 강도로) 곱혀야 하는 거 이만큼만(작은 강도로) 해도 이 정도(큰 정도)의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바들바들 이렇게 떠는 거예요. 애가 조금만 만져도 바들바들 이렇게 떠는 게 느낌 자체가 막 다르니까 ...

E(남성 동성애자): 제 주종이 필로폰이니까 필로폰으로 할게요. 좋았던 거.. 일단은 다 썩시해. 이 사람이 좆같이 생겼는데 존나 내 스타일처럼 보이고. 모든 게 다 야하고 썩시해 보이고 전부 다 나를 만족시켜주는 느낌? 음향 사운드 시각 모든 것이.

이대로 죽어도 좋겠다 싶은 10시간 이상의 오르가즘

연구참여자들은 켈섹스를 통해 경험하는 쾌락의 지속성과 강렬함을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였다. 참여자 C는 필로폰 사용으로 사정 후에도 발기가 유지되고, 오르가즘이 장시간 지속되며 10시간 동안 성관계를 이어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는 이를 초현실적인 쾌락으로 묘사하면서, 약물이 유혹적이면서도 위험한 요소임을 '악마의 물질'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냈다. 참여자 A 역시 켈섹스 시 멈추지 않고 사정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더 강렬한 자극을 경험했다고 설명하였다.

C(남성):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보통 평균적으로 약을 하든 안 하든 언제 제일 좋냐면 썩 때 제일 좋아요. 썩는 시점

에. 정액을 사정할 때 제일 좋은데, 그걸 싸고 나서도 쿠퍼에서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그 오르가즘을 계속 10시간 동안 가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우리 둘만, 애(상대방)한테만 곱혀 있는 거예요. 이 약기운, 각성할 수 있는 이 악마의 물질로 인해서 10시간 동안 섹스할 수 있는 그 쾌락을 얻는 거죠. 근데 거기에 자이데나나 비아그라나 이런 강직도를 유지할 수 있는 약까지 들어가니까 그러면서 이제 쾌락이 유지가 되는 거고 ...

A(남성): 원래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성간에 관계를 마치고 사정 후에 샤워를 하고 나서 다시 어떤 무드와 분위기를 찾고 다시 관계를 하던가 막 이렇게 하는데, (켈섹스 시에는) 어떤 상황까지 되냐면은 너무 자극을 찾다 보니까 또 안에다가 사정을 하고 나서도 (발기가) 죽지 않으니깐 그 느낌을 잠깐이라도 잃는 게 싫어서 계속 또 이어서 바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 그러면서도 더럽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 더러운 건 아니죠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을 더 되게 자극적으로 시각적으로 또 보고 그걸 자극적으로 느껴요.

반면, 여성 참여자인 B는 약물을 통해 극한의 쾌락인 하이(high)를 경험할 수 있는 동시에, 남성과 달리 해소되지 않는 흥분 상태에서 비롯된 괴로움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B(여성): 남자들은 뭔가 그런 상황이 오면 딱 그게 한 번 탁 치닫고(사정 후) 그 다음에 툭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

은 원래 호르몬 그러니까 뭔가 발사를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는 현자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그게 없잖아요. 뭔가 팡 하고 막 그런 제 몸에서 도파민이 뭔가 이렇게 딱 뭔가 발설되거나 이렇게 딱 터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는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계속 그 상태가 완전 하이(high)로 갔다가 그리고 내려간다고 해서 바닥으로 내려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계속 제가 약물을 한 상태에 달아 올라와 있는 상태니까 계속 그 몸의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엄청 괴로운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 여자는 해소가 안 되니까 계속 몸에서 막 어쩔 줄 몰라하는, '미쳐버리겠네' 하는 약간 그런 게 좀 있긴 있어요.

재투약 시간: 약기운이 떨어질 즈음 쉬면서 용량 추가

참여자 D와 E는 켄섹스 중 약물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추가 투약하는 과정인 '바라시'를 언급하였다. D는 첫 투약 이후 일정 간격으로 용량을 추가하며 2-3일간 켄섹스를 지속했다고 보고했으며, E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일한 쾌락을 유지하려면 약물의 투약 빈도를 늘려야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약물에 대한 내성으로 인해 효과 유지를 위해 점점 더 잦은 투약이 필요해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D(여성): ... 바라시도 해야 되니까 어차피 ... 약 첫 칸 넣고 또 (투약)하는 거. 계속 이제 바라시라고 하는 게 약기운이 꺾 때쯤 넣어주고 꺾 때쯤 넣어주고 꺾 때쯤 넣어주는 게 바라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

까 오빠랑 이제 처음에 2.5칸을 싸요. 그럼 바로 관계가 들어가요. 그러면 한 4시간 5시간 이렇게 놀아요. 그러면 딱 말해 바라시 할까 그러면 담배 하나 피우고 바라시 하자 하면 담배 하나 피우면서 다시 이제 주사기 하나 말아놓고 하면서 조금 약간 한 5분 10분 쉬는 거지 ... 약기운이 스물스물 빠질 때쯤 다시 넣으면 다시 폭발하는 거죠. 러시(흥분감)가 다시 오는 거죠. 약기운이 그러니까 더 좋은 거지 그러니까 안 쉬고 계속 바라시하면서 계속 하는 거지.

E(남성 동성애자): 처음에는 정량만 넣어도 하루 종일 놀 수 있는데 나중에 되면 추가 추가 추가 추가 이렇게 돼요.

특히 참여자 D는 켄섹스에서 '정신줄을 놓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한 용량을 첫 투약에 맞아야 만족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녀는 첫 투약에서 강한 효과를 얻지 못하면 이후에 아무리 추가 투약을 해도 처음과 같은 쾌락이나 만족감은 느끼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자신에게 맞는 용량에 따라 첫 투약 시에는 2.5칸을, 이후에는 1칸씩 추가 투약하며 쾌락을 연장했다고 보고하였다.

D(여성): 만약에 제가 한 칸을 맞아서 이성의 끈을 잘 잡고 있는 사람이면 정신줄을 못 놓잖아요. 재미가 없어. 그럼 정신줄을 놓을 만한 칸을 찾아야 돼. 나만의 칸수를 ... 2.5칸을 맞으면 정신줄이 놔져. 그래서 첫 칸을 좀 세게 맞는 거예요 ... 첫 칸을 조금 넣어버리면 이거는 약을 해도 애매하게 한 거고 뭐도 아니고 좀 짜증

이 나요. 거기서 더 밀어넣는다고 첫 칸 느낌처럼 안 오거든요 ...

집단 켈섹스: 끊임없는 자극 추구하고 성적 판타지의 실현

일부 참여자들은 점차 강한 성적 자극을 추구하며, 사회적 금기를 넘나드는 집단 켈섹스를 경험하였다. A는 이러한 경험이 감정적 유대보다는 성적 쾌락에 집중된 관계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하며, 파트너들 간에도 이러한 목적이 공유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약물의 영향으로 기존의 사회적 규범이 희미해지고, 성적 자극이 행동의 주요 동기로 작용했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A는 집단 켈섹스가 모든 참여자의 동의가 전제될 때만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강요로 인한 불안감이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을 막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했다고 언급하였다.

E는 남성 동성애자의 켈섹스 맥락에서 한 명의 파트너와의 관계가 여러 파트너와의 관계로 자연스럽게 확장된다고 보았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보다 개인적으로 아는 범위 내에서 성 파트너를 찾는 것이 법적 문제와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을 피하는 데 안전하다고 하였다. 또한, E는 일부 비(非)약물 사용자 남성 동성애자들이 약물 사용자와의 성관계를 선호하는 이유로 약물 사용자의 과감성을 꼽았다. 그는 약물의 영향으로 성관계 중 신체적 고통조차 쾌락으로 느껴졌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모습이 비(非)약물 사용자들에게도 약물 사용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강한 자극을 추구하려는 욕구와 집단 환경에서 형성되는 유대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A(남성): 나중에 극락인 상태로 가면 이 여성(상대 여성)이 보이지 않아요. 그 느낌만이 생각날 뿐. 그리고 이제 다른 이성과 했을 때 또 다른 느낌이어서 ... 또 이성들이 서로를 다 알고 있었어요 ... 약 먹은 사람들은 그런 걸 개의치 않아요. 그냥 이거 하고 내가 좋으면 되기 때문에 ... 약물의 특성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처음에 했던 말이 '그냥 어차피 이거 하려고 만났고 우리 어차피 이성 다 날아가는 거 알지 근데 뭐 그런 걸 뭘 말로 하나 ... 이미 여자들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처럼 ... 그냥 만약에 어떤 술자리라면 (특정)이성이 마음에 드는 그런 게 없어요. 어~ 먼저 해. 그냥 하고, 또 같이 하고, 또 나중에 이거를 막 바꿔서 교환해서 하고, 정말 이 친구와 관계를 하고 있는데 저와 키스를 하고 막 이런 거죠. 정말 이성의 끈을 놔버려요.

E(남성 동성애자): 1대1로 하다가 나중에 되면 다 그룹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 우리 둘이 만약 하고 있어, 그러면 분명히 애가 아는 사람이나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하다가 콜 이렇게 섭외. 안전빵은 그거고, 좀 위험한 수단은 또 OOOO(게이앱)으로 들어가는거죠. 아니면 노말(normal)이죠. 노말 (약물) 안 하는 사람들 ... 그렇게 오는 사람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잘하니까 야하니까 약을 하는 사람들은 야하고 잘하니까 그걸 즐기러 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모르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모르고 왔다 이거 뭐냐 이러면서 놀라가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저도 주세요 하는 사람도 있고 ...

캠섹스 중 겪는 복합적 어려움

캠섹스 중 가장 빈번하게 언급된 실질적인 문제는 약물 사용으로 인한 발기부전이었다. 이는 성관계를 진행하기 어렵게 만들며, 발기를 원하는 당사자와 성 파트너 모두에게 공통적인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발기부전제를 사용하거나 성인용품을 활용하였으며, 이러한 양상은 많은 경우 장시간에 걸친 구강성교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상대방에 대한 의심과 집착이 심화되고, 서로 자신의 쾌락에만 몰두하면서 상대를 배려하지 못해 관계가 악화되는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끝으로, 참여자들은 장시간 지속되는 성행위와 과도한 체액 분비로 인해 공간의 위생적 문제나 분위기 전환을 위해 장소를 이동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하였다.

발기가 어려워 발기부전제와 성인용품 사용, 장시간 구강성교로 이어짐

캠섹스 중 발기부전 문제는 남성 참여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A는 발기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강한 비아그라를 복용하고 성관계를 시도했으며, 필로폰과 비아그라를 병용하면서 겪은 신체적 증상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참여자 C는 캠섹스 시 발기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는 특정 온라인 플랫폼의 마약방에서 발기부전제 관련 정보를 얻고, 약물 사용 사실을 숨긴 채 비뇨기과에서 처방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A(남성): 이제 남자는 어쨌든 관계를 이어갈 수 있어서는 남자가 더 중요하긴 하

잖아요. 왜냐면 발기라는 게 되고 그래야 성교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잘 안 된다는 이미 그 친구의 조언이 있었어서 이제 비아그라 중에서도 강한 걸 먹고 왔어요. 근데 좀 많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몸에서도 간에서 이걸(약물) 해독하고 엄청 힘든데 비아그라까지 먹으니까 빛에 대해서 엄청 빛 반사가 일어나서 눈이 부서서(관계를) 못할 정도로 앞이 안보일 정도로 막(눈이) 부서더라고요. 터질 것 같고 근데 이제 또 혈류는 막 이제 또 여기(성기)로 도움을 주니까 ...

C(남성): 처음에 됐었어요. 안 된 경험도 있어요. 그래서 자이테나를 들고 다녀서, 자이테나라는 약이 있거든요. 비아그라, 시알리스, 팔팔, 자이테나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 OOOO(온라인 플랫폼) 같은 데서 정보방 이런 거 보면 고추 안서는데 비아그라 뭐(먹어요) 이런 거(물어보고) ... 아는 형한테 약(발기부전제)을 받았다가 여기 바로 뒤에 O비뇨기과라고 있거든요 ... 그래갖고 해보니 신세계여서 발기부전은 아니지만 나도 O비뇨기과 가야지 이렇게 돼서 간 거죠.

참여자 D는 남성의 발기 문제로 인해 장시간 구강성교를 해야했던 상황과 그로 인한 신체적 고통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녀는 이러한 고통을 자신의 성적 기술과 효능감에 대한 불안과 연결지었는데, 이는 화류계에서 남성들을 만족시켜야 했던 직업적 경험과 연관된 것일 수 있다.

D(여성): 필로폰은 남자(성기)가 안 서요. 매우 안 서요. 그것 때문에 저 엄청 고통 받았거든요 ... 이게 (남자 성기를) 아무리 빨아도 안 스니까 별짓거리를 해도 안 스니까 ... 이게 스킨이 있어야 하는데 할 줄 모르니까 못 세우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물고 빨고만 이거를 24시간 넘게 하고 있었어요 ... 약이 다 깨고 나면 입이 아파요. 말을 못할 정도로. 지(상대방)도 아프고.

참여자 B는 켈섹스에서 성인용품 사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는데, 이는 남성의 발기 부전이 있더라도 여성의 성적 만족을 충족시키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해석된다. 여러 연구참여자들은 켈섹스 중 여성의 성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여성의 행동이 극단적이 되고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성인용품은 이러한 상황에서 갈등을 방지하고, 여성의 성적 경험을 안정화하는 중요한 도구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B(여성): 많이 이용하죠. 거의 (켈섹스)한다고 하면 무조건 있어요. 기구 무조건 사요. 보통 100%라서 ... 병원에서 한 번 (사람들이랑) 얘기를 한 적도 있긴 하고, 근데 그냥 이거는 그냥 룰(rule). 그냥 약을 해보면 다 알 만한 그런 ... 오프라인으로도 구매하고 요즘에 오프라인 매장이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 쓰는 종류는 뭐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겠죠. 취향이 있으니까.

상대에 대한 의심과 집착 증가, 서로 자신

의 쾌락에 몰두됨

약물 사용으로 인해 고조된 쾌락은 사용자들의 심리적·정서적 상태에 변화를 일으켰고, 이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어, 참여자 B는 약물의 영향으로 상대방에 대한 의심과 집착이 심해졌다고 진술했다. 또한 참여자 D는 켈섹스 상황에서 각자가 자신의 욕구에만 몰두하게 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결국 관계가 오래가지 못한다고 설명하였다.

B(여성): 좀 의심이나 오해나 그런 것들이 좀 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소유욕 같은 것들이 괜한 저만의 자존심인 거죠. 그런 것들이 막 계속 생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막 사랑해서라는 것보다는 진짜 약 때문에. 그냥 집착하고 그런 것들이. 남자도 그래요.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가 좀 심해지죠.

D(여성): 나는 좀 아파서 쉬고 싶어. 근데 애는 이제 이기적이라서 지금 성 여기에 미쳐 있어. 나는 좀 쉬어야 될 타임인 것 같아. 아파 밀어. 그러니까 좀 그런 거에서 ... 남자도 지도 답답해 지도 미치겠는데 자기도 야동보고 계속 딸쳐야 되는데 여자 신경 써주고 그게 뭐가 있었겠어요. 여자는 원하는 게 또 그게 아니거든 나 좀 이렇게 뭐 해줬으면 좋겠거든. 그러니까. 이게 힘이 잘 맞으면 잘 굴러갈 텐데 왜 뽕섹(켈섹스)을 하면 왜 이렇게 사단이 많이 날까 생각을 해보면 다들 그런 것들, 되게 이기적으로 변하니까 자기 욕구만 충실하려고 하니까 ...

장시간 많은 분비물로 인해 장소를 자주 옮김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캠섹스 장소로 모텔을 언급하였다. 참여자 A는 장소에 크게 구애받지 않지만, '집은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모텔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참여자 D 역시 모텔을 선호하는데, 이는 분위기 전환과 장시간의 성관계로 발생하는 땀과 분비물을 집에서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캠섹스 중 발생하는 소음 등 환경적 제약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언급하였다.

A(남성): 언제 어디서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물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모텔. 집이 제일 낡긴 한데 집은 이제 좀 더러워질 수 있으니까 제일 편안하게 하기엔 ...

D(여성): 집에서 웬만해서 안 하려고 했죠. 소음도 있고 그리고 모텔을 옮겨다니는 게 좋거든요. 환경을 자주 바꿔주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되게 약을 하고 섹스를 하면 더 지저분해져요. 담배도 막 피고 던지고 그리고 땀을 많이 흘리고 그리고 여자들도 사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되게 침대가 시트가 다 젖고 홍수가 나요 그냥. 그러니까는 환경을 계속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모텔촌에 가죠. 모텔촌에 가면 무인 성인용품 샵도 있고 막 하니가는 돌아다니기 되게 좋아, 약 하기 너무 좋은 공간이에요.

E의 진술에서는 모텔과 휴게텔 같은 특정 장소와 즉석 만남이라는 행태를 통해 남성 동성애자인 약물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새로운

자극과 환경 변화를 추구하는 모습을 드러낸다. 특히 휴게텔은 남성 동성애자 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지는 주요 장소로, 만남이 빠르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환경을 제공한다(조성배, 2003).

E(남성 동성애자): 약을 하다가 조금 깎다 싶으면 모텔에서 시작하면 흠이지 않아요. 흠어지면 각자 다른 모텔 잡아서 번개를 하거나 즉석 만남을 하거나 아니면 휴게텔로 가버려요. 휴게텔 가잖아요? 약한 애들 천지예요. 약하고 온 애들. 눈이 다 풀려가지고 서울은 장난 아니고 부산은 좀 덜 심한 편이고 ...

캠섹스로 인한 자기파괴적 결과

캠섹스는 순간적인 해방감과 강렬한 만족감을 제공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허감, 죄책감, 자기혐오 등 심리적 고통을 초래하였다. 또한, 다수의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우려는 참여자들의 심리적 고통을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었으며, 참여자들은 약물 없는 성관계에서 만족감을 느끼기 어려워졌다고 호소하였다.

좋았던 만큼 비례하는 신체적·심리적 후폭풍

참여자들은 캠섹스 이후 심각한 신체적·심리적 고통을 경험했다고 보고하였다. E는 장시간의 성관계로 인한 탈진과 근육통을 겪었고, C는 극단적인 쾌락 후에 경험하는 고립감을 '심장을 꺼내 외나무줄 끝에 홀로 서 있는 느낌'으로 비유하며, 쾌락의 강도가 클수록 공허감과 우울감이 커졌다고 진술하였다.

E(남성 동성애자): 체력이 바다나서 일단 며칠 동안 안 씻고, 씻을 때도 있지만 기운이 다 빠져요. 수분도 빠지면서 ... 몸에 진액이 빠진다는 느낌? 진액이 빠지고 너무 힘들어요. 눈이 빠질 것 같고 소화도 안 되고 밥도 안 먹고 배도 고프고 살이 축 늘어지거든요. 수분이 빠지니까. 너무 피곤하고 ... 예를 들어서 어떤 자세를 많이 했다 그러면 목에 담도 오고 근육통 오고 ...

C(남성):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할 땐 좋은데 하고 나서 3일 후면 후회한다 ... 후회라는 단계는 좀 지난 것 같고, 홀로, 이제 홀로 서 있는 거죠. 3일 후부터 내 심장을 꺼내서 외나무 줄 끝에 홀로 서 있는 느낌이 계속 나는 거죠. 3일 후부터. 근데 그게 (약을) 맞고 애(여자)랑 했을 때 좋았던 만큼에 반비례돼요. 얼마나 좋았는가에 따라서 그 후폭풍이 나쁘게 와요 ... 공허함. 공허함이 좀 제일 잘 맞는 표현인 것 같고, 공허함, 예민함 뭐 이런 거 당연히 우울도 동시에 수반되는 거고요 ... 그래서 안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는 게 그 거죠.

다수의 파트너로 인한 법적 문제 발생의 가능성

참여자 A와 E의 진술은 켐섹스 경험자들이 다수의 성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법적 위험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음을 보여 준다. A는 켐섹스 파트너 간 네트워크의 제한성으로 인해 관계가 폭로될 위험이 크며, '사건이 달린다는 표현을 통해 법적 문제에 연쇄적으로 얽힐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

였다. E는 위험 신호를 감지할 경우, 즉시 관계를 종료하는 방식으로 폭력적 행동이나 경찰 신고 등의 잠재적 위험을 피하려는 의식적인 대응 전략을 보여주었다.

A(남성): 이 사람 저 사람 저는 조금 그래도 많이 만났어요 ... 이성과 이렇게 이런 관계를 맺는다는 게 특히나 양쪽이 적은 상황에서 서로가 이 업무(��섹스)를 목적으로 하는 이 관계는 극비예요. 극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원활한 관계가 절대 쉽지 않거든 ... (누군가) 무서워서 쭈라(필로폰 부작용; 편집증적 망상)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수를 하면은 어떤 사람, 사건이 또 올라오고 이 사람도 또 알고 보니까 다른 여자한테 또 약물을 권했던거고 또 했던 사람이고 또 조사해 보니까 또 나오고 이런 관계가 엄청 많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러운, 내가 사건이 달릴 수도 있는, 그냥 중독자들 사이에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E(남성 동성애자): 한 사람을 만나야 돼요. 여러 명 만나면 위험성이 너무 많아서. 사고칠 확률이 높아가지고. 노는 도중에 도라이 되버리면 사고 나거든요. 경찰에 신고당하거든요 ... 저는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벨어버리거든요 ... 그냥 최대한 그쪽 말을 수용하다가 도저히 안되겠다 치면 일이 생겨서 가야 된다고 약간 사인을 줘요. 그럼 지도 눈치를 까거든요. 그러면 붙잡아요. 그러면 나 안 된다 가야 된다. 가족 때문에 가야된다 ...

필로폰 없이는 성적 만족을 느끼기 어려움

참여자 C와 D의 진술은 켄섹스를 통해 경험한 극대화된 쾌락이 약물 없는 성관계에서 만족감을 느끼기 어려운 새로운 기준을 형성했음을 보여준다. C는 약물 사용이 성적 충동을 촉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동력으로 작용한다고 느끼지만, 약물이 없으면 성적 흥미를 상실한다고 설명하였다. D는 약물 없이 성관계를 가졌을 때 기계적이고 무감각하게 느껴졌으며, 약물 사용 시 장시간 지속되었던 성관계가 약물 없이는 단 몇 분 만에 끝났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이들은 약물이 없으면 성관계를 고려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C(남성): 이걸 진짜 저도 저 스스로의 숙제인 것 같은데, 약을 안 하고 (성관계를) 한대라는 게 상상이 일단 지금 안 들고요. 별로 좋을 것 같지가 않아요 ... 이쁜 여자를 보면 저 여자랑 자보고 싶다 꼬서볼까 어떻게 해볼까 어떻게 노력해볼까 그런 생각조차 안 드는 거예요. 그게 (약이) 없으면 그냥 기대를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아예 못 느끼는 거예요. 성욕을 거의 ... 그래서 애초에 약이 없으면 그 여자랑 잘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 그만한 쾌락을 느껴보면 다시는 낮은 쾌락을 상상을 해도 흥미를 잃죠.

D(여성): 진짜 이제 약이 없이 섹스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들이 무표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웃겨서 나는 누워 있고 오빠는 위에 올라와 있는데 '이거 우리 약이 없어서 약을

안 하고 해서 그런 거지? 약간 '응' 이리 더라고요. 하면서 그러면서 사정도 엄청 빨리 하고 저는 느낌도 안 오고 근지럽지도 않고 아예 ... 일단 3분 안에 끝나기도 하고 뭐 그건 말할 필요도 없고 ...

쾌락의 지속을 위한 안전장치들

본 주제에서는 켄섹스로 인한 쾌락을 유지하면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참여자들이 사용한 전략들을 다룬다. 이들은 신체적 요구나 시간 감각 상실을 관리하기 위해 알람 설정, 수분 섭취, 켄섹스 시간 제한, 음식 섭취, 수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였다.

시간 파악 및 수분 섭취를 위한 알람 설정

참여자 D는 성관계에 몰두하면 갈증과 시간 경과를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8시간마다 물을 마시고 샤워를 하도록 알람을 설정했다고 하였다. 이는 켄섹스가 강렬한 자극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 요구를 인식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을 시사한다.

D(여성): 그냥 진짜 2-3일 내내 해요. 물도 안 마시고. 그러니까는 오죽했으면 알람을 맞춰놨어요. 8시간마다 물 마시려고 까먹으니까 ... 사람이 자기가 갈증이 나는 것도 잊은 채 섹스만 하고 있으니까 탈수 오고 땀을 계속 흘리니까 왜냐하면 계속 (성)행위를 하니까 정말 땀을 계속 흘리거든요. 그래서 8시간마다 알람 맞춰놓으면서 샤워해주고 물 먹어주고 체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시도 해야 되니까 ...

한 번 할 때 3일 넘기지 않기

참여자 C는 약물 사용이 장기간 지속되면, 특히 무수면(sleepless) 상태에서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흐려지는 부작용을 경험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켄섹스를 3일 이상 지속하는 것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C(남성): ... 3일차 때쯤 되면 다시 (약을) 맞으면 그때부터 위험해져요. 무수면 72시간 정도 이상이 되면 위험해져. 이게 뇌랑 몸이랑 둘 다 (잠을) 자라고 신호를 보내는데 (약)필로폰)으로 계속 그걸 바꿔 버리니까 그때부터 거울을 봐도 내 얼굴이 아닌 것 같고 그때부터 환청이 잘 들리기 시작합니다. 3일차 때부터 ... 같은 노래의 구절이 반복된다거나 ... 이제 환시, 없는 게 보이는건 아니에요 ... 가만히 있는 여자 노래 앨범 사진이 돌아간다거나 막 그렇게 돼요 ... 그래서 이거 자야 되겠구나. 그때 계속 (약을) 맞으면 이빨 빠지고 하는 거죠.

필수적인 휴식 및 최소한의 음식 섭취

참여자 E는 켄섹스 후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겪으며 후회를 하였으나, 충분한 식사, 수면, 좌약 사용으로 회복한 후 다시 켄섹스를 반복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켄섹스가 신체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중독적 행동을 알 수 있으며, 쾌락과 고통의 경계가 흐려지는 특수한 경험임을 드러낸다.

E(남성 동성애자): (약기운이) 다 깨면은 (항문이) 존나 아프거든요. 아파서 며칠 동안 고생해요. 씨O 내가 왜 했지 ... 며칠

동안 또 빠르게 식사를 하고 잠을 충분히 자면 좀 (회복돼요) ... 약 바를 때도 있죠 약이 있어요. 좌약. 좌약 넣는 거 있어요 아니면 후시딘.

강렬한 쾌락의 여운

본 주제에서는 켄섹스라는 극한의 쾌락과 고통이 얽힌 경험에 대해 참여자들이 느끼는 양가감정과 심리적 갈등, 그리고 삶의 변화를 위한 자기 훈련과 재건 의지를 다룬다.

극한의 쾌락과 고통이 얽힌 켄섹스에 대한 양가감정

켄섹스 경험은 참여자들에게 극도의 만족과 동시에 깊은 상실감이나 후회를 안겨 주었으며, 이로 인해 복합적인 심리적 갈등을 일으켰다. 참여자 A는 쾌락과 죄책감 사이에서 갈등을 느꼈고, 참여자 C는 켄섹스를 '양날의 검'이라고 표현하며 그 이중성을 강조하였다. 참여자 D 역시 켄섹스를 '천국과 지옥'에 비유하며, 강한 욕망과 그 뒤따르는 고통 사이에서 심리적 딜레마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진술은 켄섹스가 단순한 쾌락 추구를 넘어, 복합적인 감정과 내면의 갈등, 그리고 삶에 깊은 흔적을 남긴다는 점을 보여준다.

A(남성): 저도 이게 제가 무슨 감정인지 모를 정도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설레는 게 힘들어요. 이게 지금 어떤 감정인지 정확히 설명해 드리면요, 그때 그 감정 지금 말씀드리면서 지금 나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도 그 느낌을 저는 알고 있으니깐 좋은데 이 좋아서 이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는 일반 시점에서 볼 수 있으

니가 그게 또 소름이 돋으면서 좋은 건 또 어쩔 수 없다. 이걸 부딪히는 이 감정. 이게 무서운 거예요 ...

C(남성): 양날의 검이에요. 그냥 좋은 것 만큼 안 좋아요 ... 그냥 제 인생 30 몇 년 살면서 제일 뇌에 쫓힌 경험입니다. 좋은 걸로든 나쁜 걸로든 둘 다로. 바카라(도박의 일종)로 학비를 날린 그 이상으로.

D(여성): 천국도 갔다 오고 지옥도 갔다 오는 느낌이랄까 이런 거 ... 매번 그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약을 하면서 살면 천국이겠지만 매일매일 약을 하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 그 약을 할 때 잠시 느꼈던 만약에 그걸 천국이라고 표현을 하면 그 이후는 지옥인 거죠. 그냥 당연히 반대되는 거니까 ...

삶의 개선을 위한 자기 훈련과 노력

참여자들은 쉼세스와 같은 중독적 행동을 통제하고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참여자 A는 '하이재킹(hijacking)' 개념을 통해 중독의 원인을 이해하고, 자기 비난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사고로 자기 통제력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참여자 B는 약물 사용으로 인한 자신의 왜곡된 집중 상태를 인식하고, 일상에서 건강한 집중력을 회복하려는 점진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참여자 F는 중독 행동에서 벗어나 더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고자 했으며, 중독으로부터의 회복이 단순히 약물을 끊는 것이 아닌 삶의 방향과 가치 체계를 재구성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들의 경험은 회복이 단순한 물질적 금단을 넘어서, 삶의 방향성을 변화시키는 과정임을 드러낸다.

A(남성): 제가 (강의) 들은 내용 중에 제일 많이 이제 이런 현상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됐던 게 하이재킹(hijacking)이라는 단어. 하이재킹이 뭐냐면 자극에 져버린 뇌가 이 약물을 갈구하는 방향 쪽으로 자극을 뽑아서 보내려고 할 때 속는 거다 ... 디톡스(detox)가 되기 전까지는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없고 이미 여기에 자극점을 너무 느낀 거기 때문에 자석처럼 끌려가는 거다 ... 근데 그거 자책하지 마라 뇌가 하이재킹 당하는 거야라고 말씀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긍정적인 생각으로 돌릴 수 있게 되고 ...

B(여성): 장애를 가지게 되는 그런 느낌. 지금은 극복해야 되는 시기이긴 하지만 계속 다른 쪽으로 생각이 빠진다거나 그 사람(상대방)한테 집중을 하는 게 어렵고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때(약물 사용 당시)는 이제 그 집중이 막 저희가 건강한 집중이 아니잖아요. 막 꽂혀버린 거잖아요 ... 그래서 이거를 딴 생각으로 막 빠지려고 할 때 이게 저가 느껴지잖아요. 이걸 다시 또 바로잡아야 되는 연습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어요. 이게 또 좀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도 점차 팀이 좀 줄어드는 것 같긴 해요 ... 그러니까 좀 그 팀도 이제 크게 막 있지 않고 그 그래프도 막 높낮이가 높지 않은데 그런데도 아직 조금 힘들어요.

F(트랜스젠더): 일련의 이런 것들을 경험해보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니 현재 나는 돌이켜 봤을 때 좋긴 좋았는데 그렇게 까지 좋은가 좀 퇴색된 그런 느낌도 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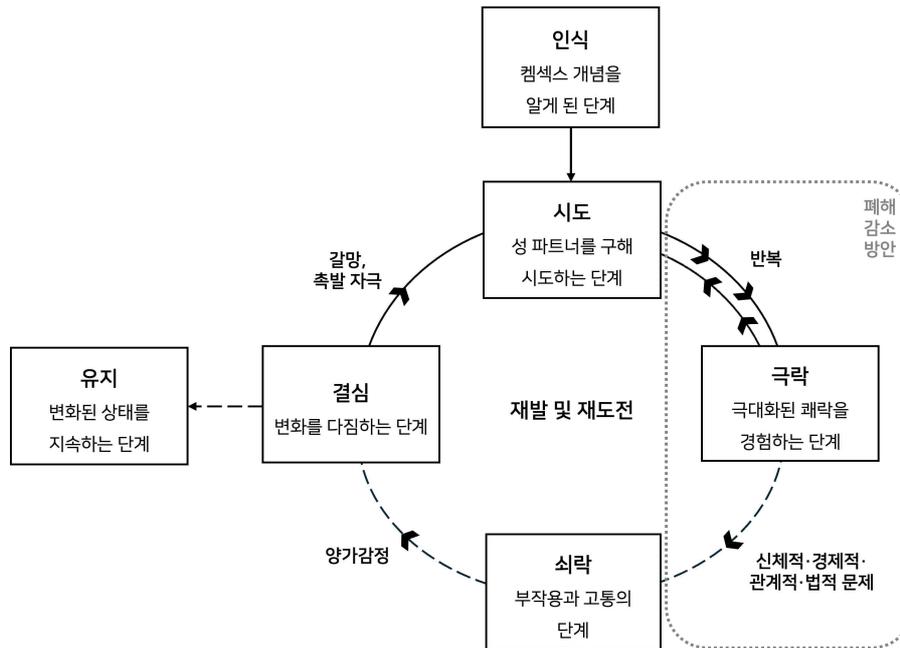


그림 1. 켐섹스 경험의 전반적인 과정 도식화 - DiClemente, C. C.(2003)를 토대로 연구자 재구성

거고 ... 그냥 내가 좀 살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지금은 ... 알코올 약물 도박 성 인터넷 이런 물질이나 행동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중독이 아닌 상태로 한번 살아보는 게 제가 원하는 방향 중에 하나여서, 왜냐하면 그(중독이) 너무 오래 지속됐고 제 삶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런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있어서 그런 것들보다 더 우위에 있지 않거든요. 이게 동등하지도 않고 그래서 만약에 좀 더 이게 약물이랑 이렇게 더 저한테 가치가 있었다면 병원에 저는 지금 있지도 않고 일단 나가서 (약을) 하고 있었겠죠.

지금까지 살펴본 한국의 20-30대 마약 사용자의 켐섹스 경험은 DiClemente(2003)의 변화 단계모형(Stages of Change Model)을 활용하여

그림 1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한국의 20-30대 마약 사용자가 켐섹스를 하게 되는 과정, 켐섹스 경험 및 그로 인한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켐섹스 경험이 있는 20-30대 마약 사용자 6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인터뷰 내용은 해석현상학적 분석 방법(IPA)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총 7개의 주제와 20개의 하위 주제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20-30대 마약 사용자의 켐섹스 참여는 마약에 대한 낮은 진입 장벽과 온라인 플랫폼의 익명성 및 활성화로 인해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썬섹스 경험자들은 초기에는 지인이나 연인, 성 파트너를 통해 썬섹스를 접하거나, 온라인에서 약물을 구매하다가 썬섹스 개념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이후에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약물과 성 파트너를 쉽게 구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과거에 주로 대면으로 약물이나 성 파트너를 확보했던 방식과 대조적이며(강은영, 이성식, 2004; 주일경, 엄명용, 2003), SNS를 통한 마약류 유통이 초기 성인의 마약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는 심석(2023)의 분석 맥락과 일치한다.

또한, 약물 사용자인 성 파트너와의 관계는 약물중독 유지 및 재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 2명은 모두 약물 사용자였던 남성과의 관계를 통해 썬섹스를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 이와 같은 경향은 장정연(2013)의 연구와 Malandain 등(2021)의 연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중독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 중이던 시기에도 다른 약물중독 환자와 외출 시 썬섹스를 했었다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치료 과정에서도 약물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이 서로의 회복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성별이 분리된 환경은 마약에 중독된 개인이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여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김남희와 서정민(2016)에 따르면, 한국 약물 사용자의 치료 서비스 이용 의도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약물중독 치료 서비스에 대한 장벽을 더 높게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필로폰은 성(性)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여성이 필로폰을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강한 낙인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로 인해 치료 현장에 나아가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 2023년 기준 국내 마약류 사범 중 여성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대검찰청, 2023), 여성 전용 치료 시설이 마련된다면 여성 마약중독자들이 보다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이성애자 약물 사용자 뿐만 아니라 남성 동성애자 및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다양한 성 정체성을 가진 연구참여자를 포함하였다. 이러한 다양성은 썬섹스 경험의 차이를 다각도로 탐색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썬섹스 경험자의 성 정체성에 관계없이 이성애자와 성소수자 모두 성 파트너 수가 다수인 경향을 보였으나(Cheng et al., 2010; Hibbert et al., 2019; Jalil et al., 2022; Loza et al., 2020; Semple et al., 2004; Stevens et al., 2019), 본 연구의 성소수자 연구참여자들은 이성애자 연구참여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성 파트너 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하여 다양한 문화권에서 성소수자의 썬섹스는 성소수자 전용 모바일 앱을 활용한 네트워킹, 개방적 성 문화, 정체성 및 HIV와 관련된 사회적 낙인 등 심리사회적 요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Grosskopf et al., 2014; Platteau et al., 2019; Wansom et al., 2020), 이러한 양상은 국내 MSM의 썬섹스 경험을 보고한 Power of Pleasure (2022)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반면, 본 연구의 이성애자 연구참여자들은 주로 어느 정도 안면이 있거나 친밀한 관계의 이성과 썬섹스를 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한국 사회에서 이성애자의 썬섹스가 다소 제한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썬섹스 경험이 성적 지향과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음

을 확인하였다.

둘째, 켄섹스에서 사용되는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켄섹스 경험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켄섹스 약물로 주로 필로폰을 보고하였는데, 이는 지난 10년간 대검찰청 마약류 동향 자료에서 연간 마약류 압수현황 중 필로폰의 압수 실적이 가장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 있다(대검찰청, 2014-2023). 또한, 필로폰은 이미 여러 선행연구에서 성적 쾌락 증진을 목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약물로 보고되고 있다(Drysdale et al., 2021; Li et al., 2021; Malandain & Thibaut, 2023). 그러나 Íncera-Fernán-dez 등(2022)은 알코올, 대마초, MDMA가 주로 성적인 용도로 사용된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대마초와 MDMA에 대해 성관계와의 연관성이 명확히 하지 않다고 진술한 면에서 차이가 있다. 반면, Berry 등(2020)의 연구에서는 필로폰의 용량에 따라 성적 흥분과 욕구가 증가하여 성적으로 충동적인 의사결정을 유발한다고 제시하였는데, 이는 필로폰이 참여자들의 성적 경험과 의사결정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지한다. 더 나아가, 필로폰 투약 후 나타나는 쾌락은 자위나 성 파트너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점진적으로 강도가 높아지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일경(2004)의 연구에서도 필로폰 사용 후 자위행위 시 성적 쾌감이 증대되고, 성관계에서 더욱 강렬한 쾌락을 경험한다고 보고된 바와 일치한다.

한편, 켄섹스에서 기대만큼 황홀경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로 상황적 요인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 중 성매매 업소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여성 참여자 D는 일을 할 당시에는 필로폰 사용 후 손님과의 성관계에서

쾌락을 느끼지 못했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주일경(2004)의 연구에서 남성 참여자들이 성매매 환경에서 필로폰 사용을 통해 자유롭고 규범 없는 성관계를 즐길 수 있었다고 진술한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성별과 사회적 역할에 따라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의 경우 직업적 요구로 인해 감정노동을 수행해야 하는 반면(박순주, 2013), 남성 참여자들은 자신이 선택한 상황에서 소비자로서 성매매 경험을 누렸을 가능성이 크다(이은진, 2009). 참여자 D의 사례는 상황적 요인이 켄섹스로 인한 황홀경 경험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 밖에 필로폰 사용 용량이나 다중 물질 사용(substance use) 여부 등과 같은 다른 요인들도 켄섹스로 인한 쾌락의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켄섹스는 기본적으로 8-10시간 이상의 성관계를 가능하게 한다. 참여자들은 이 과정에서 장시간의 오르가즘을 경험하며, 성적 행위에 완전히 몰두하게 된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몰두 현상은 필로폰 사용의 특징 중 하나로, 김거성(2015)이 제시한 ‘쾌락의 몰두’와 ‘성적 황홀경’의 개념과 부합한다. 또한, 켄섹스가 이렇게 장시간 지속된 것은 약물 효과가 감소할 즈음 소량의 약물을 재투약(re-dosing)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는 Van Hout 등(2019)의 연구에서 MSM 켄섹스 참여자들이 성관계 중 발기부전제를 다시 복용하거나, Macfarlane(2016)의 연구에서 약물 효과가 짧은 GHB/GBL을 주기적으로 재투약하는 양상과 유사하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 역시 켄섹스 중 필로폰을 재투약하며, 신체적 한계에 도달하기 전까지 강렬한 쾌감을 연장하고자 했다고 진술하였다.

캠섹스 경험자들은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점차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었으며, 이는 종종 집단 캠섹스로 이어졌다. 집단 캠섹스는 약물 사용자들 사이에서 비교적 흔한 현상으로 보고되며(Mateu-Gelabert et al., 2014; Prestage et al., 2009), Friedman 등(2011)은 이 과정에서 콘돔이나 성인용품의 공동 사용, 손과 입의 점막 접촉 등을 통해 질병의 교차 감염(cross-contamination) 위험이 증가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MSM 맥락에서는 집단 캠섹스를 통해 성병 및 HIV 감염이 이미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어(Han et al., 2020; Hirshfield et al., 2015; Rice et al., 2015), 한국의 캠섹스 맥락에서도 유사한 위험 요인을 탐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넷째, 캠섹스 경험자들이 캠섹스 도중 겪는 어려움은 크게 신체적 및 심리적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신체적 어려움은 주로 약물 사용으로 인한 남성의 발기부전 문제로(Dolatshahi et al., 2016; Martinotti et al., 2018), 이로 인해 발기부전제 사용 및 성인용품의 구비, 장시간 구강 성교가 캠섹스의 주요 요소로 자리잡았으며, 특히, 장시간 구강 성교는 이를 수행하는 성 파트너에게 신체적 고통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심리적 어려움은 캠섹스 시 서로 자신의 쾌락에만 몰두하게 되는 경향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Masters와 Johnson(1966)의 성 반응 주기 모델에 따르면, 남성은 대개 여성보다 빠르게 오르가즘에 도달한 후 불응기(refractory period)를 가지게 된다. 반면, 여성은 상대적으로 오르가즘에 도달하는 데 시간이 걸리거나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단 도달하면 불응기 없이 연속적인 오르가즘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캠섹스 상황에서는 약물이 흥분 상태를

연장하거나 심화시키면서 남성과 여성 간의 생리적 차이를 더욱 두드러지게 만들어, 상호간 성적 욕구의 충족이 어려워지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남성은 발기나 사정에 지나치게 몰두하면서 여성의 성적 긴장 해소에 관심을 두지 못하게 되고, 여성은 해결되지 않은 성적 긴장으로 인해 심한 불편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신체적·심리적 어려움은 많은 경우 캠섹스 파트너 관계가 지속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다섯째, 캠섹스 이후에 겪는 어려움은 주로 다수의 파트너와의 관계로 인한 법적 문제, 필로폰 없이는 성적 만족을 느끼기 어려움, 그리고 캠섹스에 대한 양가감정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세 명 이상의 성 파트너 경험이 있었는데, 이는 Hittner 등(2016)의 연구에서 필로폰 사용이 여러 성 파트너를 두는 고위험 성 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다수의 성 파트너 관계는 수사 과정에서 법적 조사망에 오를 위험성을 높여 이들의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를 가중시켰다. 또한, 참여자들이 캠섹스를 경험한 이후 필로폰 없이 성적 만족을 느끼기 어렵다는 점은 김진숙(2020)과 주일경(2004)의 연구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약물 의존이 단순히 신체적·화학적 중독을 넘어 성 기능과 관련된 심리적 영역에도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관련하여 조영성(2023)은 약물에 대한 강한 갈망과 부도덕적 성 관념이 약물 사용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며, 높은 쾌락적 성 태도와 우울감이 단약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회복 과정에서 캠섹스 경험자의 심리사회적 요인을 고려하고,

대상자들이 성과 관련된 건강한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켐섹스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심리치료나 약물치료법은 아직 확립되지 않은 실정이다(Malandain & Thibaut, 2023; Turner et al., 2022). Turner 등(2022)은 켐섹스와 관련된 강박적 성행동 장애(Compulsive Sexual Behavior Disorder) 환자의 경우, 정신적·신체적 건강 문제를 면밀히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며, 성병 예방, 약물중독 및 그로 인한 부작용, 비동의적 성행위 및 성폭력 방지, 그리고 HIV 예방 전략을 포함한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치료와 관련해서는, 인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r Therapy)가 약물중독 치료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었으나(Kim, J., 2020; Malandain & Thibaut, 2023), 켐섹스 자체에 대한 치료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MSM 집단을 중심으로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을 높여 위험 성 행동(risky sexual behaviors)을 거부하도록 하거나, HIV 검사를 수용하도록 하는 개입과 같은 폐해감소 방안(harm reduction practices)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Del Pozo-Herce et al., 2024).

여섯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단약 및 켐섹스를 중단하게 된 계기는 주로 법적·경제적 문제에서 비롯되었으며, 주거형 재활 공동체의 지원은 이러한 중단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먼저, 법적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은 단약의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예를 들어, 참여자 A는 자수 이후 법적 문제와 가족 갈등을 계기로 재활센터에 입소하였고, 참여자 E는 경제적 파탄으로 인해 단약을 결심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외부의 압박 상황이 단약 결심에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주거형 재활 공동

체의 지원은 단약과 켐섹스 중단을 지속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참여자 B는 병원 치료 과정에서 알게 된 신앙 기반 주거형 재활 공동체에서 다른 회복자 및 그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며 단약을 이어가고 있다. 참여자 F 또한 치료 과정 중에 시작한 신앙 생활과 재활 공동체의 지지를 통해 약물 및 다른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반면, 회복 과정에서의 어려움도 나타났다. 참여자 C와 D는 단약 결심 이후에도 회복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지속적인 난관에 부딪혔다. 이는 단약의 계기나 시기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며, 단순한 결심만으로는 장기적인 회복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약물중독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재발을 하더라도 회복의 방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체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데, 주거형 재활 공동체는 이를 돕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주목된다.

주거형 재활 공동체는 단순히 약물 사용을 억제하는 공간을 넘어, 약물에 중독된 이들에게 안전한 환경과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는 생활 공동체로 기능할 수 있다. 일례로, 본 연구의 일부 참여자들은 기독교 신앙 기반의 약물중독 치료자활 가족공동체인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에서 도움을 받고 있었다. 이 공동체는 10년 이상 단약을 유지한 회복자들과 그 가족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료 단약 희망자 및 회복자들로 구성된 자조모임을 통해 참여자들에게 지속적인 회복에 대한 희망을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직업 재활을 위한 사업 운영을 통해 자존감 회복과 경제적 자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특별히, 이러한 신앙을 기반으로 한 주거형 재활 공동체의 효과는 신성만(2017)의 동기군

형이론에서 제시한 자율감(autonomy), 소속감(belonging), 유능감(competence), 목표감(sense of goal)을 충족시키는 구조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신앙적 성찰은 이를 내면화 하는 과정에서 외부 규율에 따라 행동하기 보다는 스스로 회복을 선택하는 과정으로 이끌어 자율감을 강화한다(임혜영, 김학주, 2018). 비슷한 어려움을 공유하는 이들이 모여 이룬 공동체에서의 생활은 구성원들에게 소속감을 제공하며(최유리, 2023; Van Der Meer Sanchez & Nappo, 2008), 직업 재활과 성취 경험은 유능감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Connolly & Granfield, 2017). 특히, 신앙은 회복 과정을 삶의 목적과 연결된 목표감으로 확장하며(Kerley et al., 2014), 이는 변화의 지속성을 가능하게 하고 새로운 삶의 동기를 부여한다. 이러한 점은 약물중독 회복에서 영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선행연구들과도 맥을 같이 한다(김재환, 2019; 김진숙, 2020; 임혜영, 김학주, 2018).

또한, 홍정은(2024)은 위와 동일한 신앙 기반 주거형 재활 공동체에서 회복 중인 연구참여자들의 사례를 통해, 이들이 '중독된 상태'에 집중하기보다 삶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타인에게 기여하기 원하는 삶을 살고자 변화하는 과정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정남운과 유은영(2015)은 내면화된 수치심이 중독가능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며, 자기 통제력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낸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는 약물중독에서의 재활이 단순히 단약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대상자들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고 내면화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기존의 약물 재활 교육이 약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강조하고 갈망을 자극할 수 있는 시청각 자료를 반복적으로 상기시키는

현실에서는 근본적인 회복을 이루기 어려울 수 있다. 대신, 재활 공동체가 자아존중감의 회복, 건강한 대인관계 형성, 사회적 기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때, 개인이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되어 지속가능한 회복을 이루도록 돕는 데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접근은 기존 디톡스(detox)나 약물 치료 프로그램이 해결하지 못한 중독의 심층적 원인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다. 현재 한국의 약물중독 치료 체계가 초기 해독 이후 장기적 회복 지원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기존 주거형 재활 공동체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확장은 필수적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의 규모는 IPA 기준으로 적절하였으나, 썬섹스라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경험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제한적이었다. 특히, 썬섹스 개념이 주로 MSM 그룹에서 출발했음을 고려할 때, 한국의 MSM 커뮤니티 내 썬섹스 특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존 선행연구와 비교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문화적·사회적 맥락에서의 차이를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는 정성적 접근에 초점을 두었으나, 썬섹스의 심리적·신체적 영향을 계량적으로 검증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심리적 스트레스 수준, 신체 건강 상태, 약물 사용 패턴 등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정량적 접근을 병행하여 보다 체계적인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정책적·제도적 접근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하였다. 주거형 재활 공동체의 필요성을 제안하였으나, 사례가 기독교 신앙에 치우쳐 있었다는 한계를 가진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고려한 사례를 분석하거나, 비종교적 재활 및 지원 시스템의 가능성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국에서 연구가 부족했던 켄섹스 현상을 분석하여, 켄섹스 개념과 경험에 대한 이해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학문적 의의를 지닌다. 특히, 기존 선행연구가 주로 MSM을 중심으로 이뤄진 반면, 본 연구는 한국의 20-30대 마약 사용자의 다양한 성적 지향과 배경을 포괄하여 켄섹스 연구 대상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바 있는 ‘폐해감소방안(harm reduction practices)’ (Palmer et al., 2023; Herrijgers et al., 2020)이 한국의 켄섹스 경험자들 사이에서도 일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추후 한국에서 켄섹스 관련 폐해를 논의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마약 및 켄섹스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으며, 이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공동체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가 제시하는 대안은 마약 사용과 켄섹스 경험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지속적인 회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강은영, 이성식 (2004). 약물남용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김거성 (2015). 필로폰 중독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김남희, 서정민. (2016). 약물사용자의 치료서비스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Gelberg-Andersen 취약계층행동모형의 적용. 보건사회연구, 36(1), 565-599.
 김재환 (2019). 메스암페타민 중독 남성의 회복 과정에 관한 생애사 연구: 양자변화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30(1), 43-81.
 김진숙 (2020). 여성마약중독자의 회복과 재활 경험에 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4), 674-685.
 대검찰청 (2023). 12월 마약류 월간동향. 서울: 대검찰청.
 대검찰청 (2014). 12월 마약류 월간동향: 마약류 사범 연령별 단속 내역. 서울: 대검찰청.
 대검찰청 (2014-2023). 12월 마약류 월간동향. 서울: 대검찰청.
 박성수, 백민석 (2019). 마약류 범죄의 압수율 측정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경찰연구, 18(1), 151-170.
 박순주 (2013). 성매매 여성의 ‘노동’ 경험 인식과 그 맥락에 관한 연구. 건강정책학회, 41, 7-53.
 신성만 (2017). 중독행동의 이해를 위한 동기 균형이론. 한국심리학회지: 중독, 2(1), 1-12.
 심 석 (2023). 20-30대 초기 성인 마약류 남용의 심리사회적 위험요인: 개념도 방법 (Concept Mapping)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동대학교 대학원].
 이은진 (2009). 성인 남성의 성구매 경험에 따른 성매매와 성 관련변인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3), 377-398.
 임혜영, 김학주 (2018). 회복기 마약중독자의

- 영성 체험에 관한 연구: 기독교·가톨릭인 회복자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8(11), 98-112.
- 장정연 (2013). 여성 마약사범의 경험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59, 207-241.
- 정남운, 유은영 (2015). 내면화된 수치심의 임상적 타당성: 자기통제력, 공격성 및 중독 가능성과의 상관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1(3), 481-496.
- 조성배 (2003). 게이 남성의 소비 공간과 몸의 정치학.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조영성 (2023). 마약중독자들의 단약기간과 약물심각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 [박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 주일경 (2004). 남성 히로뽕 사용자의 과대성락과 그 인식에 관한 연구: 재활을 위한 사회복지 실천적 합의 찾기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주일경, 엄명용 (2003). 한국의 마약사용자들의 특성 파악과 그에 따른 사회복지적 개입을 위한 패러다임 연구: 소년 약물사범 예방책 발굴을 위한 기초 논의. *소년보호연구*, 4(0), 272-297.
- 중앙관세분석소 (n.d.). 주요 마약류 특성. <https://www.customs.go.kr/cclss/cm/cntnts/cntntsView.do?mi3250&cntntsId=962>
- 최유리 (2023). 마약중독자의 회복여정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 치료 공동체 입소자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 홍정은 (2024). 약물중독단약자의 회복 요인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기독교공동체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5(4), 171-213.
- Batisse, A., Eiden, C., Deheul, S., Monzon, E., Djeddar, S., & Peyrière, H. (2021). Chemsex practice in France: An update in Addictovigilance data. *Fundamental & Clinical Pharmacology*, 35(2), 397-404.
- Berry, M. S., Bruner, N. R., Herrmann, E. S., Johnson, P. S., & Johnson, M. W. (2020). Methamphetamine administration dose effects on sexual desire, sexual decision making, and delay discounting. *Experimental and Clinical Psychopharmacology*, 38(2), 180-193.
- Bourne, A., Reid, D., Hickson, F., Torres-Rueda, S., Steinberg, P., & Weatherburn, P. (2015). "Chemsex" and harm reduction need among gay men in South London. *International Journal of Drug Policy*, 26(12), 1171-1176.
- Cheng, W. S., Garfein, R. S., Semple, S. J., Strathdee, S. A., Zians, J. K., & Patterson, T. L. (2010). Binge Use and Sex and Drug Use Behaviors among HIV(-), Heterosexual Methamphetamine Users in San Diego. *Substance Use & Misuse*, 45(1-2), 116-133.
- Cheng, W. S., Garfein, R. S., Semple, S. J., Strathdee, S. A., Zians, J., & Patterson, T. L. (2009). Differences in Sexual Risk Behaviors among Male and Female HIV-Seronegative Heterosexual Methamphetamine Users. *The American Journal of Drug and Alcohol Abuse*, 35(5), 295-300.
- Connolly, K., & Granfield, R. (2017). Building Recovery Capital: The Role of Faith-Based Communities in the Reintegration of Formerly Incarcerated Drug Offenders. *Journal of Drug Issues*, 47(3), 370-382.
- Del Pozo-Herce, P., Martínez-Sabater, A., Sanchez-

- Palomares, P., Garcia-Boaventura, P. C., Chover-Sierra, E., Martínez-Pascual, R., Gea-Caballero, V., Saus-Ortega, C., Ballestar-Tarín, M. L., Karniej, P., Baca-García, E., & Juárez-Vela, R. (2024). Effectiveness of harm reduction Interventions in Chemsex: a Systematic review. *Healthcare, 12*(14), 1411.
- Dolatshahi, B., Farhoudian, A., Falahardoost, M., Tavakoli, M., & Dogahe, E. R. (2016). A qualitative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ethamphetamine abuse and sexual dysfunction in male substance abusers. *International Journal High Risk Behaviors & Addiction, 5*(3), 1-6.
- DiClemente, C. C. (2003). Addiction and Change: How addictions develop and addicted people recover. *American Journal on Addictions, 12*(5), 459-460.
- Drysdale, K., Bryant, J., Dowsett, G. W., Lea, T., Treloar, C., Aggleton, P., & Holt, M. (2021). Priorities and practices of risk reduction among gay and bisexual men in Australia who use crystal methamphetamine for sex. *International Journal of Drug Policy, 93*, 103163.
- Friedman, S. R., Mateu-Gelabert, P., & Sandoval, M. (2011). Group sex events amongst non-gay drug users: An understudied risk environ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Drug Policy, 22*(1), 1-8.
- Grosskopf, N. A., LeVasseur, M. T., & Glaser, D. B. (2014). Use of the internet and Mobile-Based “Apps” for Sex-Seeking among men who have sex with men in New York City. *American Journal of Men S Health, 8*(6), 510-520.
- Han, W. M., Colby, D. J., Khlaiphuengsin, A., Apornpong, T., Kerr, S. J., Ubolyam, S., Kroon, E., Phanuphak, N., Vasan, S., Matthews, G. V., Avihingsanon, A., Ruxrungtham, K., Phanuphak, P., & Tangkijvanich, P. (2020). Large transmission cluster of acute hepatitis C identified among HIV positive men who have sex with men in Bangkok, Thailand. *Liver International, 40*(9), 2104-2109.
- Herrijgers, C., Poels, K., Vandebosch, H., Platteau, T., Van Lankveld, J., & Florence, E. (2020). Harm Reduction Practices and Needs in a Belgian Chemsex Context: Findings from a Qualitative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7*(23), 9081.
- Hibbert, M. P., Porcellato, L. A., Brett, C. E., & Hope, V. D. (2019). Associations with drug use and sexualised drug use among women who have sex with women (WSW) in the UK: Findings from the LGBT Sex and Lifestyles Survey. *The International journal on drug policy, 74*, 292-298.
- Hirshfield, S., Schrimshaw, E. W., Stall, R. D., Margolis, A. D., Downing, M. J., & Chiasson, M. A. (2015). Drug Use, Sexual Risk, and Syndemic Production Among Men Who Have Sex With Men Who Engage in Group Sexual Encounter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5*(9), 1849-1858.
- Hittner, J. B. (2016). Meta-analysis of the association between methamphetamine use and high-risk sexual behavior among heterosexuals.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30*(2), 147-157.
- Iking, A., & Gruemer, K. (2021). New Challenge

- for Addiction Care-MSM with Chemsex Consumption Patter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and Neuroscience*, 9(4), 157.
- Íncera-Fernández, D., Gámez-Guadix, M., & Moreno-Guillén, S. (2021). Mental Health Symptoms Associated with Sexualized Drug Use (Chemsex) among Men Who Have Sex with Men: A Systematic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8(24), 13299.
- Íncera-Fernández, D., Román, F. J., & Gámez-Guadix, M. (2022). Risky Sexual Practices,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s, Motivations, and Mental Health among Heterosexual Women and Men Who Practice Sexualized Drug Use in Spain.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9(11), 6387.
- Jalil, E. M., Torres, T. S., De a Pereira, C. C., Farias, A., Brito, J. D. U., Lacerda, M., Da Silva, D. a. R., Wallys, N., Ribeiro, G., Gomes, J., Odara, T., Santiago, L., Nouveau, S., Benedetti, M., Pimenta, C., Hoagland, B., Grinsztejn, B., & Veloso, V. G. (2022). High Rates of Sexualized Drug Use or Chemsex among Brazilian Transgender Women and Young Sexual and Gender Minori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9(3), 1704.
- James, S., McField, E. S., & Montgomery, S. (2013). Risk factor profiles among intravenous drug using young adults: A latent class analysis (LCA) approach. *Addictive Behaviors*, 38(3), 1804-1811.
- Kerley, K., Deitzer, J., & Leban, L. (2014). Who is in Control? How Women in a Halfway House Use Faith to Recover from Drug Addiction. *Religions*, 5(3), 852-870.
- Khadr, S. N., Jones, K. G., Mann, S., Hale, D. R., Johnson, A. M., Viner, R. M., Mercer, C. H., & Wellings, K. (2016).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ubstance use and sexual behaviour in young people in Britain: findings from a national probability survey. *BMJ Open*, 6(6), e011961.
- Kim, J. (2020). Evidence-Based Treatments of Drug Addiction.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9(2), 186-201.
- Li, C., Ku, S. W., Huang, P., Chen, L., Wei, H., Strong, C., & Bourne, A. (2021). Factors associated with methamphetamine dependency among men who have sex with men engaging in chemsex: Findings from the COMeT study in Taiwan. *International Journal of Drug Policy*, 93, 103119.
- Loza, O., Curiel, Z. V., Beltran, O., & Ramos, R. (2020). Methamphetamine Use and Sexual Risk Behaviors among Men Who Have Sex With Men in a Mexico US Border City. *American Journal on Addictions*, 29(2), 111-119.
- Macfarlane, A. (2016). Sex, drugs and self-control: why chemsex is fast becoming a public health concern. *Journal of Family Planning and Reproductive Health Care*, 42(4), 291-294.
- Malandain, L., Mosser, S., Mouchabac, S., Blanc, J., Alexandre, C., & Thibaut, F. (2021). Chemical sex (chemsex) in a population of French university students. *Dialogues in Clinical Neuroscience*, 23(1), 39-43.
- Malandain, L., & Thibaut, F. (2023). Chemsex:

- review of the current literature and treatment guidelines. *Current Addiction Reports*, 10(3), 563-571.
- Martinotti, G., Belfiglio, E., Santacroce, R., & di Giannantonio, M. (2018). Sexual Dysfunctions and Substance-Related and Addictive Disorders. *Sexual Dysfunctions in Mentally Ill Patients*, 153-162.
- Masters, W. H., & Johnson, V. E. (1966). *Human sexual response*. Little, Brown.
- Mateu-Gelabert, P., Guarino, H., Jessell, L., & Teper, A. (2014). Injection and sexual HIV/HCV risk behaviors associated with nonmedical use of prescription opioids among young adults in New York City. *Journal of Substance Abuse Treatment*, 48(1), 13-20.
- Maxwell, S., Shahmanesh, M., & Gafos, M. (2019). Chemsex behaviours among men who have sex with men: A systematic review of the litera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Drug Policy*, 63, 74-89.
- McKetin, R., Lubman, D. I., Baker, A., Dawe, S., Ross, J., Mattick, R. P., & Degenhardt, L. (2018). The relationship between methamphetamine use and heterosexual behaviour: evidence from a prospective longitudinal study. *Addiction*, 113(7), 1276-1285.
- Moreno-Gómez, L., Hernandez-Huerta, D. & Lahera, G. (2022). Chemsex and Psychosis: A Systematic Review. *Behavioral Sciences*, 12, 516.
- Newland, J., & Kelly-Hanku, A. (2021). *A qualitative scoping review of sexualised drug use (including Chemsex) of men who have sex with men and transgender women in Asia (Report)*. APCOM Foundation.
- Noy, C. (2008). Sampling knowledge: The hermeneutics of snowball sampling in qualitative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Research Methodology*, 11(4), 327-344.
- Palmer, L., Maviglia, F., Wickersham, J. A., Khati, A., Kennedy, O., Copenhaver, N. M., Uyer, C., Halim, M. a. A., Ikhtiaruddin, W. M., Azwa, I., Gautam, K., & Shrestha, R. (2023). Chemsex and Harm Reduction Practices Among Men Who Have Sex with Men in Malaysia: Findings from a Qualitative Study. *Journal of Psychoactive Drugs*, 56(4), 585-594.
- Platteau, T., Pebody, R., Dunbar, N., Lebacqz, T., & Collins, B. (2019). The problematic chemsex journey: a resource for prevention and harm reduction. *Drugs and Alcohol Today*, 19(1), 49-54.
- Power of Pleasure (2022). 캬섹스(Chemsex)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한국 상황에 대한 보고서. 연구모임POP. <http://chemsexsupport.kr/>
- Prestage, G., Grierson, J., Bradley, J., Hurley, M., & Hudson, J. (2009). The role of drugs during group sex among gay men in Australia. *Sexual health*, 6(4), 310-317.
- Rawson, R. A., Washon, A., Domier, C. P., & Reiber, C. (2002). Drugs and sexual effects: role of drug type and gender. *Journal of Substance Abuse Treatment*, 22(2), 103-108.
- Rice, C. E., Lynch, C. D., Norris, A. H., Davis, J. A., Fields, K. S., Ervin, M., & Turner, A. N. (2015). Group Sex and Prevalent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s Among Men Who Have Sex with Men. *Archives of Sexual*

- Behavior*, 45(6), 1411-1419.
- Scholz-Hehn, A. D., Milin, S., Schulte, B., Reimer, J., Buth, S., & Schäfer, I. (2022). Substance Use and Chemsex in MSM - a Latent class analysis. *Journal of Drug Issues*, 52(1), 83-96.
- Semple, S. J., Patterson, T. L., & Grant, I. (2004). The context of sexual risk behavior among heterosexual methamphetamine users. *Addictive Behaviors*, 29(4), 807-810.
- Semple, S. J., Patterson, T. L., & Rant, I. (2005). Methamphetamine use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heterosexual men and women. *Journal of Substance Use*, 10(1), 31-47.
- Smith, J. A., Flowers, P., & Larkin, M. (2015). 해석 현상학적 분석. (김미영, 이광석 역). 서울: 하누리. (원저는 2009년에 출간).
- Stevens, O., Moncrieff, M., & Gafos, M. (2019). Chemsex-related drug use and its association with health outcomes in men who have sex with men: a cross-sectional analysis of Antidote clinic service data.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s*, 96(2), 124-130.
- Stuart, D. (2019). Chemsex: origins of the word, a history of the phenomenon and a respect to the culture. *Drugs and Alcohol Today*, 19(1), 3-10.
- Turner, D., Briken, P., Grubbs, J., Malandain, L., Mestre-Bach, G., Potenza, M. N., & Thibaut, F. (2022). The World Federation of Societies of Biological Psychiatry guidelines on the assessment and pharmacological treatment of compulsive sexual behaviour disorder. *Dialogues in Clinical Neuroscience*, 24(1), 10-69.
- Van Der Meer Sanchez, Z., & Nappo, S. A. (2008). Intervenção religiosa na recuperação de dependentes de drogas. *Revista De Saúde Pública*, 42(2), 265-272.
- Van Hout, M. C., Crowley, D., O'Dea, S., & Clarke, S. (2019). Chasing the rainbow: pleasure, sex-based sociality and consumerism in navigating and exiting the Irish Chemsex scene. *Culture Health & Sexuality*, 21(9), 1074-1086.
- Wang, H., Jonas, K. J., & Guadamuz, T. E. (2023). Chemsex and chemsex associated substance use among men who have sex with men in Asia: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Drug and Alcohol Dependence*, 243, 109741.
- Wansom, T., Pinyakorn, S., Kolsteeg, C. J., Kroon, E., Sacdalan, C., Chomchey, N., Ananworanich, J., Vasan, S., Phanuphak, N., & Colby, D. (2020). Brief report: Group sex and methamphetamine use fuel an explosive epidemic of hepatitis C among HIV-Infected men who have sex with men in Bangkok, Thailand. *Journal of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s*, 84(4), 331-335.
- Whitlock, G. G., Protopapas, K., Bernardino, J. I., Imaz, A., Curran, A., Stingone, C., Shivasankar, S., Edwards, S., Herbert, S., Thomas, K., Mican, R., Prieto, P., Nestor Garcia, J., Andreoni, M., Hill, S., Okhai, H., Stuart, D., Bourne, A., & Conway, K. (2021). Chems4EU: chemsex use and its impacts across four European countries in HIV-positive men who have sex with men attending HIV services. *HIV medicine*, 22(10), 944-957.
- Xu, J., Han, Q., Chu, Z. X., Zhang, J., Hu, Q. H., Jiang, Y., Geng, W., Zhang, C., &

Shang, H. (2014). Recreational Drug Use among Chinese Men Who Have Sex with Men: A Risky Combination with Unprotected Sex for Acquiring HIV Infection. *BioMed Research International*, 2014, 1-9.

논문 투고일 : 2025. 01. 24

1 차 심사일 : 2025. 03. 06

게재 확정일 : 2025. 03. 21

A Qualitative Study on the Chemsex Experiences of Drug Users in Their 20s and 30s in South Korea

Hanna Lim Sungman Shin

Handong Global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the process and experience of chemsex among six drug users in their 20s and 30s in South Korea, as well as its psychological, physical, and social impacts, using Interpretative Phenomenological Analysis (IPA) through in-depth individual interviews. Chemsex refers to the use of specific substances to enhance sexual pleasure. Unlike previous studies that have primarily focused on Men who have sex with men (MSM), this research takes a more inclusive approach by encompassing heterosexual individuals and drug users with diverse sexual orientations in South Korea. Data analysis yielded a total of seven main themes and twenty sub-themes, which are as follows: 'Low Entry Barriers to Chemsex', 'The Dynamics of Chemsex Pleasure', 'Chemsex: Intensified Experiences of Extreme Pleasure and Addiction', 'Complex Challenges Experienced During Chemsex', 'Self-Destructive Consequences of Chemsex', 'Safety Mechanisms for Sustaining Pleasure', 'The Aftereffects of Intense Pleasure'. This study sheds light on the intricate interactions between drug use and sexual behavior among young drug users in South Korea, emphasizing the ambivalence, isolation, and psychological and physical difficulties within the cycle of addiction. The insights from this study contribute to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multifaceted effects of drug use, including chemsex, on individuals. Furthermore, they provide a foundation for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to explore this topic from a more open and comprehensive perspective.

Key words : Chemsex, Young Adults, Drug Users, Interpretative Phenomenological Analysis(IPA), Drug Addiction